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10



VOL. 208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협업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협업솔루션
ezEKP

전자결재
ezFlow

모바일오피스
ezMobile

통합
커뮤니케이션
ezUC

지식관리
ezKMS

문서관리
ezDMS

변화하고 있는 업무환경에서 (주)가온아이가 보유한 차세대 협업 Tool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코린도그룹의 적용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업 내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세미나 안내

- 일정** 2013년 11월 15일(금) 09:00 ~ 10:30
- 장소** Centry Hotel (Jakarta)
- 대상** CEO, CIO, 총무, IT담당책임자 약 30명
- 참가문의** (주)가온아이 기획마케팅팀 김진우 과장
E-mail : (luckyst@kaoni.com)

Seminar Guidance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드립니다.

시간	내용	발표자
09:00 ~ 09:05	인사말	가온아이
09:05 ~ 09:10	환영사	
09:10 ~ 10:00	협업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가온아이
10:00 ~ 10:20	코린도그룹의 적용사례	가온아이
10:20 ~	Closing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

가온아이 UC&C(Unified Communications & Collaboration)는 정보근로자들이 표준화 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 업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여 Smart Office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해 드립니다.

● 구축사례

- ▶ 해외 사업장 :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 신한금융(일본/베트남) / 한진해운
- ▶ 국내 : KT그룹 / 신한금융그룹 / 씨티은행 / 현대그룹 / S-Oil / 한진해운 / ETRI / 한국전력기술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가스기술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병무청 / 카이스트 / 중앙대 / 동국대 / 한양대 / 영남대 등 200여 고객사 / 7000여 비즈메카 SaaS 고객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대한항공은 발리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samick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정통 독일형 삼익(피아노)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

안인의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 월간 “한인뉴스” 웹진 발행**

한인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등록된 이메일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수신하시는 내용은 월간 한인뉴스의 목차이며 제목을 클릭하시면 뉴스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혹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월간 한인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 도메인 innekorean.or.id은 2013년 9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8



VOL. 206
haninnewsinn@gmail.com





이모저모 안인사의


대사관 신청사 태극기 게양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한인회, 인니 어린이 후원금전달
코리안데이
자카르타 aT센터개소
코린도 우드칩 생산공장 준공
코린도vs현대차 범격공방
사진전 감상문 시상식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출간
2013동남아한상대회
2013세계한인회장대회
한국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제2기 출범
아시아항공 자카르타취항
산림바이오매스
제2회 한인테니스 대회
JIKS소식


이달의 읽을거리

풍경과 사람 <임종한>
라마단
인도네시아 약용식물(망기스)<백진협>
헤리티지담방기<여수정, 이수진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허영순>
좌충우돌 인도네시아 표류기(7)<이준규>
소의질병치료제 개발
질밥 그리고...<신성철>
CNN선정 한국의 명소
행복에세이<서미숙>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사공경>
신 사회 단체법<이승민>
테사드림한담<손인식>
화 도 소
8월의 영화추천작



 PDF 다운

 E-Book 바로보기



Copyright (c) 2007 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
Korean Assoc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62-21-5212515, 62-21-527-2054, Fax: 62-21-5212486, Email: innehaninhoe@gmail.com

*** KTV 뉴스 동영상 시청**
인도네시아 한인 방송 KTV에서 제작한 뉴스를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부터의 KTV 뉴스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았고 앞으로 추가되는 뉴스 자료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홍보 게시판의 기능 강화**
기존의 선 등록 후 검색의 방식에서 선 검색 후 등록 방식으로 개편하였고 홍보 방식 또한 유료로 전환하여 월 Rp.6만 / 년 Rp. 60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한인회 후원 & 할인 업체 게시판 추가**
음식점, 게스트 하우스, 사진관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한인회 회원분들에게 할인 및 선물의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 * 한인회 회원증 발급, 소지 후 추가 되는 혜택**
1. 의료혜택 : 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목동 이대부속병원, 경희의료원, 서울 아산병원, 한양대의료원 국제협력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2. 한인회관 도서관 무료 사용
 3. 한인회 후원 업체 매장 할인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 및 병역관계 안내서’ (2013 .9)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안인외 개인외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영선	2013	300,000
2	승은호	2013	300,000
3	신기엽	2013	300,000
4	이인호	2013	300,000
5	김영환	2013 - 2017	1,500,000
6	김재민	2013	300,000
7	신충일	2013	300,000
8	홍문기	2013	300,000
9	홍석영	2013	300,000
10	조규철	2013	300,000
11	정무웅	2013	300,000
12	전영돈	2013	300,000
13	김문호	2013	300,000
14	김일영	2013	300,000
15	강덕재	2013	300,000
16	최양기	2013	300,000
17	황윤홍	2013	300,000
18	김문환	2013	300,000
19	황의상	2013	300,000
20	이완식	2013	300,000
21	임성용	2013	300,000
22	강희중	2013	300,000
23	장천수	2013	300,000
24	승범수	2013	300,000
25	최석일	2013	300,000
26	이현	2013 - 2017	1,500,000
27	박영규	2013	300,000
28	지동주	2013	300,000
29	한상재	2013	300,000
30	이병기	2013	300,000
총 금액			Rp 11,4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안인외사무국 안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8

이모저모 한인사회.....10

박근혜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

힐링콘서트

LIG 빅스원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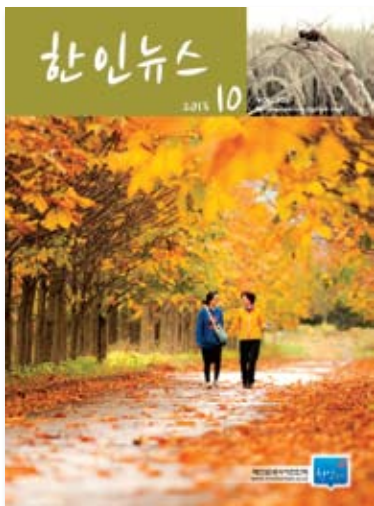
관세정책 및 외환제도 설명회

한-인니, 미래 신 재생에너지 협력강화

수력발전 MOU체결

자총련 인니지부 2대회장 취임식

수교40주년 기념유표 발행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복지는
우리의 것으로 내가 누린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우리의 것이 남의 것과 내 것 중
누구의 것으로 채워지느냐 에는
고개가 벅벅해 집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 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풍성한 행사들로
우리가 함께할 좋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야말로 노래제목같이 시월의 어느 멋진 날들이...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한국타이어,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롯데마트 , 컨벤션 개최 제4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JKS 소식 JIS 소식 현대미술의 단면전 천연화장품 강좌 코원소식 풍경과 사람	문화탐방기 <김현미>.....46
	CNN선정 한국의 명소.....50
	행복에세이<서미숙>.....52
	Jalan-Jalan Jakarta / 국립박물관 <사공경>.....56
	계약법 <이승민>.....60
노인의 공포, 치매.....34	화소도.....66
인도네시아 약용식물(부아메라) <백진협>.....38	반동한인회 소식.....68
천개의 종족, 천개의 이름 <신성철>.....41	10월의 영화 추천작.....70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44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APEC ·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6(일)~10.8(화)간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고, 이어서 제16차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ASEAN+3 정상회의」와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10.8(화)~10.10(목)간 브루나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0(목)~10.12(토)간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일정 및 예상의제

【APEC 정상회의】(10.7-10.8)

박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금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APEC의 연계성(connectivity) 비전」,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주제에 대하여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연계성 비전 : 회원국 간의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비전

박 대통령은 10.6(일) 오후 아태지역의 역내 정상과 재계·학계·언론계 지도자들이 참석, 세계 경제 전망 및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최고경영자회

의(CEO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7(월) 오전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정상과 함께 역내 기업인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오찬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의제 토론을 가진 후, 동일 오후 정상회담 세션I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서 선두 발제 및 토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0.8(화) 오전에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초청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연계성 증진」에 대해 논의한 후, 이어지는 정상회담 세션II에서 「APEC의 연계성 비전」에 관련한 토론을 갖고 각국 정상들과 함께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해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ASEAN 정상회의】(10.9)

박 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의 참석후 브루나이로 이동하여 10.9(수) 개최되는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ASEAN 센터 설립, FTA 타결,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주 ASEAN 대표부 설립 등을 통해 한-ASEAN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한-ASEAN 관계증진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 한-ASEAN 관계 발전 주요현황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07), 한-ASEAN 서비스협정 발효('09), 한-ASEAN 투자협정 발효('09), 한-ASEAN 센터 설립('09),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10), 주ASEAN 대표부 설립('12)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ASEAN에 대한 정책과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입니다.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10.10)

박 대통령은 10.10(목) 제16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그간의 ASEAN+3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ASEAN+3가 1997년 출범 이래 국제금융 공조,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지역협업체임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ASEAN+3의 대표 성과 사업 :

-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차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 CMIM과 관련하여 각국 경제상황을 감시·분석하기 위한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 식량위기 발생시 쌀의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ASEAN+3 비상쌀비축협정 (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등

또한 박 대통령은 ASEAN+3의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0.10)

박 대통령은 10.10(목)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EAS는 2011년 미국과 러시아의 가입 이후, 동아시아 정상들의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

포럼'으로 자리 잡았으며, 금년 EAS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및 전염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참석 정상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전략 포럼으로서 EAS의 역할을 평가하고, 특히 아시아지역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피해가 큰 지역인 만큼, 기후와 재난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EAS 참석 계기에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으로서, 해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 (10.10-10.12)

박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하여 10.11(금)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포럼, 한-인니 문화교류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10.12(토)에는 한-인니 정상회담 및 국민 만찬을 갖고, △한-인니 관계 평가 및 한-인니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 방안,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한-인니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동비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함께하는 자카르타 한인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9월 21일 (토)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열렸다. 주간신문 HanInPost가 주최하고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하나은행, 월드옥타, 문예총이 후원한 이번 콘서트는, 1부 ‘가족과 함께 떠나는 디즈니 환타지아’, 2부 ‘피아노가 있는 바리톤과 소리꾼의 외출’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오후 2시에 열린 1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디즈니 환타지아’ 제목으로 이지선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린 (허진경), 첼로 (김아람)의 3중주영상 연주가 울려 퍼졌다.

저녁 6시 30분에 열린 2부 ‘피아노가 있는 바리톤과 소리꾼의 외출’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열었다. 개막에 앞서 장방식 단장과 국악사랑팀은 흥겨운 율동과 판굿 사물놀이로 자리에 참석한 동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이어서 서울에서 온 이지선씨와 한인동포 바이올린 허진경, 첼로 김아람씨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음악’은, 한인동포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선물했다. 추석맞이 한가위를 느끼도록 달을 주제로 한 연주자들의 영상과 피아노 3중주 선율은, 고향을 두고 온 한인동포들을 위로했다.

이어 한인동포 소리꾼 김선아 명창과 고전 한국 무용 강아름씨의 무대는 ‘비연’ ‘당신에게로’ ‘쑥대머리’로 나래홀을 가득메인 청중의 갈채를 이끌어 냈다.

미국에서 온 바리톤 김동원과 피아노 이수희씨는 이태리곡과 한국 가곡으로 나래홀을 찾은 메니아들을 신바람 나게 했다.



또한 바리톤 김동원, 소리꾼 김선아 명창, 피아노 이수희씨, 고전 한국무용 강아름씨가 한데 어울려 ‘아리랑’을 부르자, 300여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엽 한인회장은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모처럼 훌륭한 음악회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한인동포들이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곧 추석 한가위이고 예술이다”고 말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HanInPost]

LIG넥스원 개소식



방 위산업체 LIG넥스원(대표이사 이효구)은 27일 상그릴라 호텔에서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스마르토노 국방부 감사감, 아구스 세타지 해군 획득국장 등 인도네시아 해군 및 협력업체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LIG 넥스원은 1976년 Goldstar Precision으로 설립되어 LG정밀 및 Nex1 Futur 등을 거쳐 2007년 LIG 넥스원 이후 현재까지 약 38년 간 국방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최고의 방산회사 중 하나이다.

종합방위산업전문기업인 LIG넥스원은 2009년 미국 사무소를 첫 개소한 이후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부터 통신체계 및 무전기 단말기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출하고 있다. 이번 현지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기존 사업 확대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해군 대상 합정 전투체계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인도, 콜롬비아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4번째 사무소이자 아시아 지역의 최초 해외사무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동남아 제 1의 수출시장으로서 현재 완제품 수출 진행 단계이다, 다음 단계로 현지 파트너 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며 “인도네시아 군



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효구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성공적 동남아 진출의 전략적 기반이 될 주요 시장” 이라며 “이번 현지사무소 개소를 통해 국산 무기체계 해외 진출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인회 조규철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자량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역할과 양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KOCHAM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rea Center, 5th Floor, Jalan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Tel (62-21) 527-7539
 *Fax (62-21) 5296-0586 *E-Mail kocham0909@gmail.com *Website www.innekorean.or.id
 *송금처 HANA BANK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CQ KOCHAM *계좌번호(USD) 001 0071 001512

Kocham 소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 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 조직을 재개편하여,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역할을 통해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입니다.**
주재국 대사관, 업종별 협의회 및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업계의 단합된 힘과 결집력을 배가시키는 구심점으로써 대변인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심에 섭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 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최고의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는 한인상공회의소는 KADIN,

APINDO 등 인도네시아의 제 경제 단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비롯한 한국의 제 단체 뿐 아니라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의 주요 멤버로서 국제적인 다양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투자 분야 뿐 아니라 노사, 통상, 경제, 기업 등 주요정책 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ocham 회원이 되시면

- 매주 최신 업데이트된 주요 동향이 포함된 정기 레터를 받습니다.
- 매주 토요 주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미팅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 직속 노동자문관 및 세무관세자문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회원분류	가입비	연회비	비고
이사회원	USD 100	USD 1,000	장관급이상 회의 우선 초대
일반회원	USD 100	USD 300	재인니한국기업
준회원	USD 100	USD 300	재한한국기업 및 재인니외국기업
특별회원	USD 100	-	정부출연단체

*회원가입문의는 남지화 사무국장(0812-8266-485) 또는 김혜아 간사(0813-1064-9663)로 연락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세정책 및 외환제도 설명회

24일, 자카르타 GKBI 빌딩 내 KOTRA 상생협력센터에서 대사관(대사 김영선)과 KOCHAM(회장 송창근)의 주관으로 보세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기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세정책 및 외환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인니관세청, 한국관세청, 코트라, 우리은행 후원으로 인니 보세지역정책변화와 당부사항, 최근 환율동향 및 전망과 은행 거래 시 유의사항, 한국 외환제도와 유의 사항,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규정 변화에 관한 기업들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기업은 전체 보세지역의 약 25%를 점유, 최근 인니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세지역(KB)에 대한 정책 변화내역 인식 후 적절한 대처 방안의 시급과 기업 무역과정에서 외환거래 필수적, 관련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여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

의 합법적 경영활동, 보세지역 사업자 구분에서 GREEN 서비스 등급 획득 지원과 올바른 무역과 외환거래 유도도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해 나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김영선 대사는 “환경이 바뀌는 것을 잘 파악하여 경영을 극대화 해 나가기를 바라며,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터를 경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인니, 미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산림청, 한국대사관, 한인니 산림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산업투자 포럼이 5일 오전 10시 자카르타 그렌멜리아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바이오매스 연료 부문의 정책과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 포럼에는 김영선 한국대사, 남성현 산림센터장, 한규성 한국목재펠릿협회장과 밤방 헨드로요노 인도네시아 산림부 산림개발청장, 예띠 산림부 정책관, 산림이용·재생에너지 산업청 국장들, 산림경영자협회 (APHI), 팜오일 생산협회 (GAPKI) 및 인도네시아 산림관련 진출 기업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는 환영사에서 “양국의 산림부문 협력은 이미 50여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미래 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부문이 서로 협력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주문했다.

김 대사는 이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우드펠릿량은 현재 연간 6천톤에 불과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산림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헨드로요노 산림개발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와의 산림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규성 한국목재펠릿협회장은 시계 펠릿 산업 동

향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우드펠릿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며 “우드펠릿의 주요 소비지역은 EU로 지난 2010년에만 110만톤을 소비했다. EU는 우드펠릿 생산도 하고 있으며 같은 해 EU가 생산한 우드펠릿은 9백만 톤이었다” 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드펠릿 소비량은 총 17만 4068톤으로 전년 대비(6만 2917톤) 무려 3배 가량 늘어났다. 작년 한국은 러시아(4만 2천톤), 말레이시아(3만 1천톤), 베트남(3만 톤), 인도네시아(9천톤), 중국(4천톤) 등 총 12만 2447톤을 수입했다.

국내 우드펠릿 생산량은 2009년 8천 5백톤에서 작년 5만 1330톤으로 확대됐지만 절반이상의 공급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라 임무관은 한국펠릿산업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1%로 확대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림청은 2009년부터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를 시작으로 산업용 펠릿보일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에너지인 우드펠릿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면서 “오는 2017년에는 그 수요가 11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수입량도 급증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부발전-인니, 수력발전 MOU 체결

한 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판주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은 1일 자카르타 공공사업부 청사에서 모하맛드 하산 공공사업부 수자원청장과 ‘중부칼리만판 무아로 줄로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부칼리만판에 높이 60m, 유역

면적 7천975km², 284MW 용량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정부-민간 공동투자사업(PPP)’ 형태로 4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중부발전은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을 받을 때 중부 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컨소시엄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 가운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수자원청(청장 모하맛드 하산. 맨 왼쪽), 조코 키르만토 공공사업장관(왼쪽에서 두번째),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왼쪽에서 4번째), 김상욱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맨 오른쪽)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전정윤기자 한인회 방문

9월24일 한겨레 신문 전정윤기자가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인회 임원들(회장 신기엽)과 간담회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정착 역사와 한인사회 전반의 현황을 취재하면서 앞으로 해외 동포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자총련인니지부 2대 현상범 회장 취임식



한 국자유총연맹(이하·자총련) 인도네시아 지부 2대 회장에 현상범 자문위원이 취임했다. 지난 9일 한국대사관 다목적실에서 자총련 인니지부 박동희 초대 회장의 이임식과 2대 현상범 회장의 취임식이 동시에 열렸다. 박 초대 회장은 지난 8월19일 출범한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영선 대사를 비롯, 신기엽 한인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회장, 양영연 대한체

육회 인니 회장, 강희중 월드옥타 인니지부회장, 김송정 해병전우회 회장, 김문환 문예총 회장 등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ROTC 15기 출신인 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대적 과제와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면서 인도네시아 지부를 참신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또한 봉사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 회장은 “교민들은 물론, 특히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인 교민 자녀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이들이 장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니 수교 40주년 기념우표 발행



▲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우표가 17일 발행됐다.
 <사진출처: 한국우정사업본부>

한 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17일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8일 처음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해왔다.

기념우표는 한국 우정사업본부와 인도네시아 우편공사인 포스인도네시아(Pos Indonesia)가 공동으로 2종, 총 80만장을 발행했다.

한국 디자이너 노정화 씨가 한국의 북청사자놀음을 그리고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꾸스 구스디아나 씨가 인도네시아의 들소춤인 반뎡안(Bantengan)을 형상화한 도안이 기념우표에 사용됐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대보름

에 행해지던 민속놀이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서도 행하게 됐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됐다. 사자는 전통신앙에서 잡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 동물로, 사자의 탈을 쓰고 마을을 돌며 춤을 추어 잡귀를 몰아내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반뎡안은 동부자바 지역의 전통춤으로 두 명의 춤꾼이 검은 옷과 소머리 모양의 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 힘과 정의 그리고 변영을 상징하는 소가 악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원숭이를 쫓아내는 내용이다. 반뎡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한 춤으로, 이웃한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춘다.

기념우표의 액면가는 한국 300원, 인도네시아 7,500루피아이다.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 17일 서부자바주 브카시 공단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공장 준공식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 17일 준공한 한국타이어 브카시 공장 조감도.

한국타이어가 9월17일 인도네시아 브카시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완공한 한국타이어의 7번째 글로벌 생산시설인 인도네시아 브카시 공장은 총 3억5,300만 달러를 투자해 1단계를 마무리했다.

이 공장은 연간 60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서승화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공장은 동남아, 북미, 중동 지역에서 한국타이어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 주요 거점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생산성 확보 및 물류 최적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에 준공한 인도네시아 공장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헝가리, 중국 등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두고

연간 9,38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18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공장 준공식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한국타이어 조현범사장의 장인),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중서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중경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5월에는 헝가리 공장 3차 증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 Together We Go Far 컨벤션 개최

- 인도네시아 국민 기업 이미지 구축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강조
- Hypermarket 및 Wholesale 업체 외 Supermarket 런칭을 통한 2018년 4개 점포 확장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유통업체인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지난 25일, 오후 3시에 인도네시아 Pullman Hotel Convention Hall에서 50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Convention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벤션은 마크로를 인수한 롯데마트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전과 전략’은 물론이며, ‘동반성장’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Win-Win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총 34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10월, M&A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인도네시아 유일의 도/소매업체를 모두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금년 내 2개점을 추가 오픈하여 36개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기존 마크로 매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한국에서 30여 년 간의 풍부한 유통 Know-how를 살리는 동시에 선진 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특히 현지 경영지원을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현지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금번 대형 컨벤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로 “동반성장”을 강조한 롯데마트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배려하는 “WIN-WIN”의 원칙 아래 No. 1 Retailer in Asia가 되기 위해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넘어 한국 및 중국, 베트남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민간 외교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를 총괄하고 있는 김영균 동남아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에 젊은 층 비율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며, “향후 롯데마트는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업, 여러 협력회사들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4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감보자 흰 꽃으로 만났까"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서 사는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나의 뿌리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은 힘들고 고난하며, 따라서 나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 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그만큼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한, 인니 문화연구원 (사공 경 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놓을 장을 해마다 마련해 왔다.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으며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에 문학의 한 장을 새기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오후 4시, 꼬망의 'pendopo'에서는 자바의 영혼이라 불리우는 바틱으로 실내를 장식하고, 정원에서는 연방 바틱으로 한글 문양과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많은 사람들이 제4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설레는 기다림이었다.

이윽고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양끝뿔으로, 역시 201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우리의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문화연구원의 정윤희 팀장을 비롯해 이 날



의 수상자들과 한국국제학교의 인니문화반, 그리고 특수반 학생들이 함께 꾸민 의미있는 무대였다.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교민들에게 알려 오는데 단연코 앞장 서 온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면모를 보여준 공연은, 이어진 The singer chamber choir가 부른 슬라웨시 민요과 색다른 편곡이 돋보인 강남스타일, 그리고 201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샤만가요 공연으로 감탄과 탄성의 무대가 이어졌다.

올해는 유달리 많은 응모자들이 인터넷 공모전에 작품을 보내왔고, 그중에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상인 영광의 대상은 '자카르타의 젓줄 찢리





웅 강' 을 쓴 한국 국제학교 10학년 김다
 윗 학생에게 돌아갔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인도네시아에서 찾
 아가는 이야기를 쓴 김현미 씨의 '잃어버
 린 나의 스크랩북' 이 차지했고, 학생부
 최우수 상은



인도네시아 곳곳을 여행하며 타 문화를 이해해 가
 는 과정을 써 내려간 한국 국제학교 11학년 이
 정은 학생의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공존을 이루
 다' 가 수상하였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높은 수준의 응모작들이
 몰려 순위를 정하기가 곤혹스러울 정도였지만, 한
 국인의 긍정성과 도전을 글로써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에 빠졌었다고 심사를 맡은 박정자 시인은 심
 사평을 통해 이야기했다. 학생부 심사를 맡은 채
 인숙 방송작가 역시 학생들의 참신한 시선과 감동
 적인 체험들을 읽는 기쁨이 컸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는 참가자 전원이 앙골롱 하나씩을 들
 고 즉석에서 '에텔바이스' 와 '아리랑' 을 연주
 하면서 막을 내렸다. 사공 경 원장이 축사에서 이
 야기한 인니의 서정성과 모국어에 대한 향수가 다
 양한 변주곡이 되어 울려 퍼지는 밤이었다. 인도
 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을 차려입고 자신이 살

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삶으로 받아들이려는 아
 름다운 디아스포라들이 감보자 (발리에서 감보자
 의 꽃말은 성실과 순수) 흰 꽃처럼 성실하고 순수
 하게 만난 밤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고 더
 없이 아름다웠다. 삶으로 영혼을 노래한 이 날의
 모든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의 박수
 를 보낸다.

글: 채인숙 (방송작가/공모전심사위원)

후원: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
 상공회의소, 재인니문예총 일요신문,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신문, 자카르타경제일보,
 K-TV, KBS WORLD

특별후원: 재외동포재단, PT. KIPCO ENERGY,
 PT. TAEWON INDONESIA,
 PT. STAR CAMTEX, CEO SUITE



JIKS

테마가 있는 학년캠프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지난 3주간 재학생을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학년 캠프를 실시하였다. 7학년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린캠프(9월 6일), 8학년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9월 13일), 9학년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진로탐색캠프(9월 20일)를 실시했다.

7학년 대상 그린 캠프는 환경 교육, 그린 프로젝트, 친환경 식사 등을 통하여 GREEN SCHOOL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목표에 걸맞게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8학년 대상 캠프는 학생들이 요즘 들어서 컴퓨터 게임과 지나친 핸드폰사용으로 인하여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동영상 자료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게임 중독” 강의와 학부모님들을 초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각

으로 세상을 보는 따뜻한 휴머니즘 영화 “지상에 별처럼”을 같이 관람하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하는가? 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9학년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된 진로컨설턴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캠프를 실시하였다. 12학년 선배들과의 부스를 활용한 상담으로 선후배간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져 훈훈한 선후배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좁은 지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방학과제로 각자 준비한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 TF팀 운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 입시에 대비한 진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TF팀(Task Force, 위원장 박중운 교감)을 조직하였다.

TF팀은 올해 성공적인 입시지도를 경험한 12학년 담임교사와 내년 입시 대상을 지도하고 있는 11학년 담임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의 주된 역할은 올해의 입시결과와 내년도 입시 대상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략을 짜는 일이다. 전략 속에는 각 교과별 수업 개선 방안, 방과 후 학습(ASSP)과 자율학습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 외에도 효율적인 학급 편성 방안 등 총체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TF팀은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9월 17일 실시한 1차 회의에서는 TF팀의 향후 운영 계획 및 현행 대입 프로그램의 보완 방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올해 입시 결과와 모의고사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더욱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학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JIKS는 이번 TF팀의 운영을 통해 교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발맞춘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고의 교육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쪽에서 중장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THE ENERGY & MINING INDONESIA
SERIES 2013

장 소 : PRJ KEMAYORAN

날 짜 : 201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오프닝 세레머니와 마지막 날 “관곳 사물놀이 공연”까지... 조금이나마 한국의 중장비 와 문화를 알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국악사랑 단체
단장 장방식



JIKS 초등학생들, 코리안데이를 통해 한국을 배운다

2013년 9월 17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의 교정은 곳곳에서 한국 민속놀이와 전통음식을 즐기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몸짓으로 활기가 넘쳐났다.

멀리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알게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이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코리안데이 행사의 모습이다.

나래홀에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사물놀이와 살풀이 춤, 학부모들의 합창 등의 축하공연이 이루어졌고,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지게 지기, 널뛰기, 옷놀이, 산가지 놀이 등 15가지 민속놀이와 떡 만들기, 녹두전 부치기 등의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체험활동에 이어진 마지막 3부는 40~50대 중년층의 어릴 적 운동회가 연상되는 청, 홍 팀으로 나뉜 민속 체육대회가 열려서 흥을 최고조로 높였다.

한가위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코리안데이 행사를 통해 이곳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타국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JIS 체험학습

(학생기자 권기남)

자카르타국제학교 (JIS)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매년 JIS는 11, 12학년의 특정 과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 IB S1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IB H2 생물학 학생들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체험 학습을 갔고, IB S2 환경 과목반 학생들과 AP환경 과학반 학생들은 두 조로 나뉘어 그 다음 주에 체험학습을 갔다. 학습지는 Pulau seribu의 한 섬인 Pulau Putri로 JIS에서 버스로 한 시간 정도 이동하여 Ancol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다시 1시간 30분 정도 가면 Pulau Putri에 도착한다.

학생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강당에 모여 3일 간의 일정을 듣고 체험 학습을 시작하였다. 생물 과목반 학생들과 환경 과목반 학생들은 각 과목에 맞게 현장 학습을 하며 다양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은 총 8-9개의 실험을 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강행군을 하며 자료를 기록하고 관찰하며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3일 간의 보람찬 학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와 같은 강행군을 하면서도 학생들 간의 시간도 가지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거나 산호초나 망구르브 생태계를 직접 구경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다.

환경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첫째 날 잠시 스노클링 하는 법을 배운 후 둘째 날 산호초를 직접 구경하였다. 또한 크루즈선을 타고 먼 바다에 가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했다.

JIS의 여유 없는 생활 속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자연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했다. 체험 학습의 목적은 생물학과 환경학의 실용성을 학생들에게 부각시키고, 학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의도였다. 이를 통해 JIS 학생들이 학업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 학창 생활을 의미있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천연화장품]

윤정혜강사와의 인터뷰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좌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행사를 9월 7일 뽀독인다에서 주최했다. 18명의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강사로 나선 윤정혜 선생님은 이날 두 시간 가량 여러가지 화장품 제작 과정을 선보여 주며, 만드는 용법과 레시피 및 구입처까지 공개 해주었다.

다음은 이번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윤정혜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천연화장품을 만들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대 때에는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부가 워낙 건조하고 가려워서 천연 화장품, 천연비누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쓰다보니 피부가 건조에서 건조으로 변해서 몸이 가려운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건조는 일종의 아토피 같은 피부병인데 건조해져서 가려워져요. 젊었을 때 화장품 회사에 근무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별로 천연화장품 제조 과정을 배우셨는지요?

30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도 못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보도 없고, 배울 곳도 없어서 혼자 스킨 정도만 만들어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쓰면 좋은 점은?

가장 큰 장점은 나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제 피부가 워낙 건조해서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을 쓰면 너무 건조해져서 가렵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만들어 쓰면, 제 피부의 문제점을 잘 알아서 개선 할 수 있어요. 방부제를 쓰지 않는 점도 좋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3-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피부가 예전만큼 건조하지 않아요.

간혹 나노 EGF가 들어갔다고 광고하면서 화장품의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에 파는 제품에는 몇 그램이나 들어갔는지 알 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면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 좋다는 성분을 더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좋다고 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물론한정이 되어있지만, 시중에 파는 것 보다는 많이 넣을 수 있죠. 일단 만들어 사용하는 천연 화장품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내가 쓰는 화장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점이에요.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요?

예전에는 천연 재료가 가장 발달 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한국은 천연재료를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늦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천연으로 가장 많이 발달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천연 화장품의 원재료는 표고버섯, 사과나 올리브와 같은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능성 성분 빼고는 모두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료구입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요?

많지요. 재료를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등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조사 등급이 믿을수가 없고, 가격이 싸다는 것은 질이 안좋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등급에 맞게 씁니다. 한국에서 많이 공수해옵니다. 기초적인것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조금씩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화장품 종류를 모두 알려주세요.

시중에 파는 실생활에 필요한것은 모두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사용하는 치약, 비누, 샴푸,바디클렌저, 바디 로션, 스킨 과 에센스부터 영양크림, 마사지 용 젤, 헤어로션, 헤어젤, 스크럽, 모공팩, 수분

팩, 탄력팩, 속눈썹 연장제, 큐티클제거와 같이 별도로 사용하는 것 까지도 만들어요. 이 모든 제품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요. 물론 보습제로 쓰는 히알론산과 같은 화장품의 기본 성분과 고기능성 제품은 별도로 들어가요.

***무엇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워요?**

비누가 제일 어려워요. 오일의 배합과 조화를 해서 피부 타입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몇 천장의 비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비누의 세상을 30% 정도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클렌징 세안법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가장 추천해요.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클렌징 오일은 원유에서 뽑은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는데, 미네랄 오일은 모공을 막기 때문에 피부에 별로 좋지 않아요. 천연 클렌징 오일은 식물성으로 만드는데 이는 모공을 막지 않아요.

그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끔 주위의 아토피나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비누를 만들어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제가 만든 비누를 사용해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껴요.

만드신 천연 화장품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자운고 칼라민 로션과 흑설탕스크럽이에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비싼재료로 만든 제품은 좋지만, 실생활에서 쓰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천연 샴푸가 좋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좋은지요.

시중에 파는 샴푸는 화학 성분을 강제로 합성해 높은 것이에요. 샴푸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이 같은 화학 성분을 많이 쓰면 모세혈관을 통해 피부에 흡수가 되어 체내에 쌓이게 되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샴푸만 바꿔도 훨씬 완화될 거예요.

가족들이 좋아하며 도와주는지요?

아들이 여드름 피부인테스로 직접 공부해서 만들어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도라지를 까

서 보드카에 킵쳐(도라지 원액을 알코올로 뽑아서 증탕해서 빼서 스킨하고 점목시킴) 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직접관리 해주니 지금은 아빠랑 아들 모두 정말 좋아합니다. 남편도 즐겁게 도움을 줍니다. 한국이나 어디 갔다올 때는 들고 오기 무거운 재료도 마다않고 사다줍니다.

어떤 분들에게 천연 화장품을 권하고 싶으세요? 노약자? 아기? 아토피 피부병 있으신 분?

특별히 어떤 사람이 천연 화장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인 사람과 건성 피부인 사람은 우선적으로 비누와 샴푸를 천연으로 바꾸어야 해요. 샴푸는 두피에 혈관을 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연 화장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좋은 사람은 그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써야하고, 좋지 않은 사람도 피부가 안 좋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샴푸, 세안제 등은 합성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을 녹여요. 하지만 천연 비누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게 해요. 그것만 조절해도 피부노화가 늦춰지죠. 만약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한국에서 마냥 천연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천연 화장품 강화를 하고 계시지요?

어떤 코스인지요?

두달동안 진행되며, 평일 오전에 두시간 가량 합니다. 기초 화장품인 스킨 로션부터, 클렌징 오일, 아이밤, 영양크림, 샴푸, 비누 등을 만들어요. 강좌에 관한 것은 직접 강사에게 연락하면 되겠네요!

데일리 인도네시아 학생 기사 홍유경 (JIS 12학년)
(윤정혜 0811 103 9988)





MultiGender 리더십



글. 박현순 (KOWIN 인도네시아 담당관)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두뇌의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로, 육체적인 힘보다는 창의력, 기획력, 정보처리능력, 판단력과 같은 두뇌산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원동력이 이성(理性)이었다면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화두는 감성(感性)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이 고기술인 ‘하이테크’에서 감성이 중시되는 ‘하이테크’로 바뀌고 있다.

시대가 바뀔 때 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강인한 남성위주의 리더십이 대세였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사회는 남성의 카리스마적이고 강인한 리더십만이 효과적이고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요즈음은 남성과 경쟁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욱 남성적으로 일하던 1980년대 형 여성 직장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성 같은 여성’보다는 ‘여성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여성’이 훨씬 매력적이고 업무능력도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피셔의 저서인 <제 1의 성>에 의하면 미래사회는 여성에게 유리한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네트워크,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산업이 되며 이런 면에서 여성들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배려, 경청, 이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여성적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 그렇다면 여성적인 리더십만으로 충분할까?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시대! 이제는 리더십에도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부드럽고 배려적인 여성적 리더십에 성과, 결과, 속도를 중시하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적 리더십이 결합된 멀티젠더 (MultiGender) 리더십이라면 어떨까?



MultiGender (Multiple+Gender) 리더십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우르는 리더십이다. 우리는 남성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단언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리더십, 즉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적 구분보다는 상황에 맞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인 콜리지는 ‘위대한 정신은 남녀 양성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특정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카프란(A.G. kaplan)과 시드니(M.A. Sedeney)도 양성적인 인간의 속성을, ‘다양한 행동을 골로루 할 수 있는 사람’, ‘상황과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요즈음은 남성적인 전략과 여성적인 전략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관리자이자 리더로 평가되고 있다.

남성들은 공격적, 주도적, 객관적, 지배적, 경쟁적, 논리적, 모험적, 분석적, 독립적이며 결단력이 강하며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여성들은 정서적, 감성이입적, 안전 지향적, 협동적, 의존적, 동정적, 헌신적, 직관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특성이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협상능력 또한 여성의 강점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은 한 사람 안에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고루 갖춘 경우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빠지는 사람보다 융통성, 적응력,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동기, 결혼만족도, 자

아발달 수준이나 도덕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양성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더 건강하고 사회적 적응력도 뛰어나며 자극에 대해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여성성을 강화하고 성과 지향적인 남성성을 보완한 멀티젠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무한할 것이다.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천적으로 여성 리더십만을 타고나고, 남성이면 무조건 남성 리더십만을 타고나며 남성에게는 여성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에도 각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리더십을 분석해보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멀티젠더 리더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고 여성의 섬세함, 감성,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에너지가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특별히 21세기는 여성(Femal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이 중시되는 3F시대로서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제 여성도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예전처럼 강인한 카리스마 리더십만으로 명령을 하면 모두 순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구성원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부드러운 리더십만으로 모든 일이 멋지게 해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즉 이제는 다양한 리더십과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향력과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경쟁심, 결단력, 논리력, 추진력, 그리고 어려움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가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적 리더십을 보완하고, 구성원의 상황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배려와 동기부여, 코칭을 해주는 여성적 리더십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을 강화, 발휘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고 영향력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향해가는 리더십은 남을 흉내 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내고 시대의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창출하고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할 만한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감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필요에 따라 강인한 카리스마를 결합할 수 있는 멀티젠더 리더십! 우리 여성들이 자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KOWIN Indonesia 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글로벌 시대에는 각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인재들의 발굴 및 활용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또한 큰 과제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자원이 우리 여성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여성인재들은 누구든 코윈에 가입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는 모델, 차세대 리더와의 소통, 멘토링,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전환점 및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함께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인재 여러분, 마음과 지혜가 모이는 코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1004kowin@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이란?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입니다.



한민족문화교류협의회를 소개합니다!

본회는 1993년 9월 설립된 대한민국 외교부 소관 단체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는 단체로 금번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사업

현재 재외동포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250% 내외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 지정의료기관인 인재대학 백병원은 재외동포 의료비를 내국인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 선택진료로 MRI, CT, 초음파 등을 감면하여 주고 거주국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초청 치료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재외동포환자 초청서류 : 신분증 사본, 진단서, X레이 필름, CD
- *보내실 곳 : 대한민국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94호 (사)한민족문화교류협의회
- *전화 : 82-2-538-3827
- 팩스 : 82-2-539-0395
- 이메일 : 5390395@daum.net

국가산업기술 교육지원사업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한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국내 일부 자격미달 학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돈만 챙기고 도산하는 학원이 있어 재외동포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노동부 최우수기관을 선정 국가자격증 취득까지 책임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격증 과정 : 미용사(피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교육기간 : 자격증 취득까지 (교육비 감면)
- *교육문의 : 82-2-978-0012
- 팩스 : 82-2-978-0018
- 이메일 : 5390395@daum.net

사단법인 한민족문화교류협의회

의료비 및 교육비 감면신청안내

서류접수 — 추천서 발급 — 감면 혜택

※ 추천 안내

상담전화 : 02-538-3827
 팩스번호 : 02-539-0395
 이메일 : 5383827@hanmail.net
 구비서류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진 2매,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접수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사서함 994호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33, 705호

(사)한민족문화교류협의회



※ 인재대학교 백병원 진료 안내

전화예약 : 02-2270-0458
 팩스예약 : 02-2270-0467
 인터넷예약 : www.paik.ac.kr
 응급전화 : 02-2270-0114
 주소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번지(마른내로9)
 위치안내 : 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1분)
 3/4호선 중무로역 6번출구(10분)

인재대학교서울백병원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안내

학습과정 : 서비스분야(미용,제과,제빵,요리)
 IT분야(컴퓨터) / 기타분야(창호)
 상담전화 : 02-978-0012
 팩스번호 : 02-978-0018
 기술교육팀 : 010-2358-2617
 이메일 : dwitt@naver.com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사)한국IT교육협회





Bali, Nusa Dua

이방인(異邦人)

그들만의 경건한 시간을 이방인이 같이 합니다
경건의 의미는 모르지만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마음 한 가득 다가오는 경건함은 표현 하지 않아도 느낄수 있는

소망(所望) 이라는 표현 이것지요



노년의 공포, 치매... 원인과 증상 & 예방법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의 날이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약물치료로 치매 진행을 늦추고, 심한 행동정신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치매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65세 이상 노인 중 9.18% 치매환자

치매는 일반적으로 기억력 등 지적 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는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9.18%로 5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도 4명 중 한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는 치매노인이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부담이 큰 치매는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원인 있어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긴다고 잘못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치매가 하나의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치매에는 잘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치매,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가역성치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 뇌 손상에 의한 치매 등이 포함된다.

정상적인 발달 후 지적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초래되는 상태가 치매인 것이다.

◆종류별로 예방이나 조절, 또는 치료도 가능

보건복지부의 ‘20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치매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이 71.3%, 혈관성치매가 16.9%, 기타 치매가 11.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기타 치매에는 대사질환으로 인한 치매, 뇌종양, 외상성 뇌출혈, 알

코올성치매, 영양결핍에 의한 치매, 매독 등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치매 등 초기에 발견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치매도 포함되어 있다.

16.9%를 차지하는 혈관성치매는,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로 더욱 심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일찍부터 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을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만 하면, 혈관성치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혈관성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2차적 예방을 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항치매약물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의 진행도 느리게 할 수 있다.

신경퇴행성치매는 전체 치매의 71.3%를 차지한다.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섬망이나 환시 등의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루이체 치매, 인지기능보다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전두측두엽치매 등이 해당된다. 흔히 알츠하이머병은 ‘진단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악몽의 시작’으로 여겨 지레 낙담하기 쉽지만, 약물로도 증상을 호전시키고 진행을 느리게 하는 등 조절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되는 치매의 정신행동증상들도 전문클리닉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조기진단이 답이다

기억력이 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정상적인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여기지 말고 즉시 치매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설사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를 제대로 치

료받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설사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치매의 경과 과정을 미리 환자와 보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병원의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면 즉시 치매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치매 진단 도구가 개발돼 조기치매 진단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백신을 비롯한 면역치료법, 유전자치료법, 줄기세포 치료법 등이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특히 알츠하이머 백신이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기억력, 집중력 저하 예방법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를 늘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반면에 매일 멍하니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뇌가 퇴화되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해진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면 뇌를 활성화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국어 학습 등의 새로운 공부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는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 확실한 치매예방법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고 생각해 보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스트레스 완화, 적절한 운동, 저지방식, 과일, 야채, 비타민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게임이나 장기, 바둑 같은 두뇌운동에 좋은 놀이도 도움이 된다. 노인의 경우, 지방을 피한다고 전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기름이 없거나 적은 살코기를 잘 먹어야 근력을 유지하고 운동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어 뇌가 더욱 건강해진다.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첫째, 취미활동과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셋째, 흡연과 지나친 음주를 삼가야 한다.
 넷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

진다. 그러므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여섯째, 창조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이 뇌의 인지적 여력을 증강시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 치매 예방법

- ▶ 적게 먹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 ▶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 ▶ 금연하고, 절주해야 한다.
- ▶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을 철저히 치료해야 한다.
- ▶ 처방 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 ▶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요법은 중단해야 한다.
- ▶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초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 ▶ 지속적, 반복적으로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 ▶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 ▶ 물건 둔 곳을 끝내 기억해내지 못한다.
- ▶ 대화 중에 잘 아는 사람이나 물건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 ▶ 평소에 잘 하던 일을 이제 하기가 어렵다.
- ▶ 가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 ▶ 이전과 달리 계산이 자주 틀리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 ▶ 성격이 변한다.

[도움말=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국희 교수]
 <사진=한림대의료원 제공>



제 20차 헤리티지 열린 강좌 “톡톡 인도네시아 경제”

광고로 보는 인도네시아 경제 강사: 신성철

일시: 2013년 10월 19일 10시 -12시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 (스나얀 플라자 내 Sentral Senayan 1번 건물 17층)

장소 위치 문의- 0816 1300210/ 0858 8534 6534

신청 접수: 김주현 cerahyun114@gmail.com (메일로만 신청바람)

인도네시아 경제가 궁금하세요?

요즘 치솟는 물가에 아파트 값으로 모두들 앞날이 걱정스럽지요? 신성철 선생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연회비 1인 30만 루피아(2인 1조이며 도서관에서 Nida에게만 해주세요!) /가족 4인 60만 루피아

제 15차 헤리티지 탐방 - 미국인 가이드와 함께하는 재미난 Menteng 및 Kunstkring Paleis

미국인 자원봉사자 Anita Hibler와 함께 하는 재미난 멘헝지역 탐방입니다.

지난 해부터 하려하다가 미뤄져서 이제 드디어 막을 엽니다! 이 지역은 네덜란드 시대 건축 양식이 있어서 유명한 곳이며, 인도네시아 역사의 일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3년10월 26일 9시30분-1시 30분

장소 : Taman Situlembang, 오바마 학교, 독립선언 박물관, Rumah Cikini, Kunstkring Paleis (Lunch) 선착순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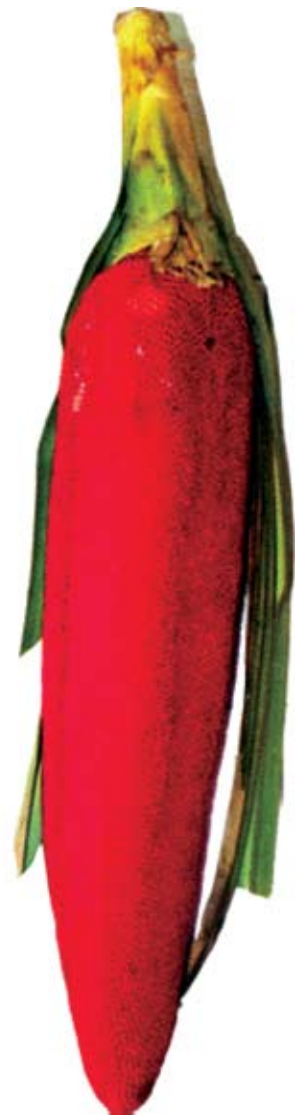
회비: 10만 루피아 (가이드 선물 및 입장료, 점심 별도)

쿤스트크링 펠리스는 분위기있는 격조 높은 레스토랑입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섹션

김주현 이수진





부아 메라 (Buah Merah)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기적의 과일?

일반명: Kuansu (파푸아), Red Fruit(영), Buah Merah(인니)

과 명: 판단과 (Family: Pandanaceae)

학 명: *Pandanus conoideus* Lam

기원지: 파푸아

분 포: 파푸아 일대

이 용: 식용,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모양새: 마치 붉은색의 거대한 옥수수처럼 생겼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기적의 과일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신비의 과일이라 하여 갑자기 유명세를 탄 식물이 있습니다. 암, 당뇨병, 간 질환, 뇌경색, 골다공증 그리고 HIV/AIDS에 이르기 까지 효능이 입증된 herbal medicine 이라고 하며 몇 해전 인도네시아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관련 기사가 실리고 난 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Buah Merah'의 추출물을 구하려고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아 메라(Buah: 과일, Merah: 붉은색)'는 '붉은 과일'이라는 뜻으로 학명은 *Pandanus conoideus* Lam 이고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이리안자야)에 널리 분포하는데 Wamena 시 인근 Jayawijay Mountain 고산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이 식물의 실체는 이 지역에 사는 원시 부족들이 식용이나 체력증진 혹은 정력증진을 위해 오랜 세

대를 거쳐 사용해오던 전통적인 음식의 일종입니다. 파푸아 지역 원주민들은 부아 메라 과육을 찌거나 익혀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주로 오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러 음식을 만들 때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부와 눈 영양 건강 보조제로도 이용했습니다. Wamena 지역의 원주민들이 척박한 고산 지역에 살면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필수영양성분들을 부아 메라 나무로부터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의 부족들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양새

이 식물은 언뜻 보기에 야자나무(Palm)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연관계가 아주 먼 식물입니다. 일반적인 *Pandanus* 속 식물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해발 2,000~3,000 미터의 척박하고 서늘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가지를 많이 치고 높게 자라는 관목성이며 많은 잎과 무거운 열매를 지탱하기 위해 줄기 하단부에서 여러 갈래로 뺏은 버팀 뿌리가 약 1m 이상 높이까지 붙어있습니다. 버팀 뿌리의 모습이 마치 오징어 다리나 외계 생물을 연상케 합니다. 잎은 두툼하며 길이가 1~2미터 폭이 5~8센티미터로 긴 가죽끈이나 허리띠 모양이고 잎 가장자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 마치 거대한 옥수수처럼 생겼습니다. 길이가 30~120cm에 달하고 지름은 10~25cm입니다. 성숙하면 붉은색을 띠며 중량이 10 kg에 이르기도 합니다. 색깔은 붉은색, 검붉은색, 노란색 등 4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메라 빨간(Merah Panjang) 품종을 주로 약용으로 활용합니다.

연구사

부아 메라의 의약적 성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자인 'I. Made Budi' 라는 사람이 파푸아 Jayapura의 Cendrawasih 대학에 부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Wamena지역 주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지 않은 이유가 부아 메라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한 그는 부아 메라의 영양적인 측면과 의약적인 이점

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조사 끝에 부아 메라는 항산화제, 베타카로틴, 오메가3, 오메가9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체 저항능력을 키워주는 물질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2년 I. Made Budi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아 메라 오일을 암과 종양, 당뇨병의 대체의약품으로 상업화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반둥 공과대학의 'Elin Yulinah Sykandar' 약학과 교수에 의해 항염증성과 세포독성 안정성이 연구되었고 (2005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약학과 교수인 'Abdul' 의 연구에 의하면 부아 메라의 오일이 생쥐의 폐암 세포 발생률을 저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뒤이어 일본인 Dr Nishigaki (Shinshu 대학)의 연구로 부아 메라의 오일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베타크립토산틴(β -cryptoxanthin)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베타크립토산틴은 카로테노이드(cartenoids)의 주 성분으로 항산화제(anti-oxidant)로써 만성질환의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소나 기업에서 부아 메라 추출물의 성분과 관련 효능들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통해 암과 종양, 관상동맥 질환, 당



노병, 천식, 폐 질환, 고혈압 등에 효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아 메라의 주요 성분인 카르테노이드(예: β -carotene, β -cryptoxanthin)와 자연산 비타민 E, 오메가 3, 6, 9 등의 항산화 효과와 면역증진 효과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항상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요즘은 부아 메라의 효능에 대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사라졌다..., 에이즈가 치료되었다..., 중풍(Stroke)이 사라졌다는 등, 암이 작아졌다, 간염과 당뇨가 치료되었다는 등 많은 증언이 인도네시아 신문 뉴스와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공공연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많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선 환자들의 증상이 정말로 그런 질병이었는지(인도네시아의 낙후 지역일수록 질병 오진의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이 들며 치유된 직접적인 이유가 부아 메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사자료가 부아 메라 오일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들의 홍보물



인 점을 고려한다면 부아 메라의 효능이 상인들에 의해 과대 선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될만합니다. 쉽게 현혹되는 대중의 맹신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척박한 지역에 사는 파푸아 원주민들에게 부아 메라가 제공하는 필수영양 성분과 건강에 주는 이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동물실험이 아닌 공인된 인체 임상실험을 통해 암이나 에이즈를 치료했다는 증명된 학술적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순한 건강보조식품 수준인지 치료제로써 효능이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단계의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Namanya Siapa?



천 개의 종족 천 개의 이름

신성철 (테일리인도네시아 대표)

400개가 넘는 종족과 언어, 석기문화와 첨단기술의 공존, 열대우림에서 만년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이 공존하는 곳이 인도네시아다. 이질적인 문화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들의 이름짓기를 통해 인도네시아 사람을 들여다본다.

다종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의 이름에는 종족적 특징이 강하게 표현돼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작명 관행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 있다. 종족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향, 종교, 계층, 지역, 나아가 개인의 취향까지 이름짓기에 반영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의 이름만 듣고도 그 사람이 무슨 종족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종족들을 서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한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를 접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의 이름은 지위 사회적 수준, 태어난 날, 가문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하지만 완전한 정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지구촌시대에 작명도 글로벌화 되는 만큼 각각의 정체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 특히 자바사람의 경우 단일이름이 많다.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제2대 대통령 수하르토가 단일이름이다. 동부자바 수라바야 출신인 수카르노는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꾸스노 소스로디하르조’였다. 아이가 자주 질병에 시달리자 그의 부모는 이름이 아이를 누른다고 판단하고 ‘수카르노’로 개명한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의 이름에는 조상이 준 성(姓)이 없으며 자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단일이름을 가지고 있다. 수카르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 기자들이 수카르노의 단일이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아흐멧’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일부 서방국가에서 아흐멧 수카르노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기스족인 B.J. 하비비 제3대 대통령과 조상이 중국계인 압두라만 와히트 제4대 대통령은 이슬람식 이름이다. 자바식 이름을 가진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제5대 대통령은 아버지인 수카르노의 이름을 뒷부분에 붙였지만 성은 아니다. 역시 자바 출신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에디 바스꼬로 유도요노’는 각자 3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성이 없고 ‘유도요노’조차 엄밀히 말하면 성은 아니다.

과거에는 종족이나 지역별로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근래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부모의 개인적 경험이나 취향,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감사하고 싶은 사람, 자식에게 품은 소망 등이 이름에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한 사고로 이름을 짓는다. 족자 출신으로 자카르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에게 자녀의 이름짓기에 대해 물었다. 첫째 여자아이의 이름은 케시아 라마다니 마울라마(Cheisyra Ramadhani Maulana)로 지었다. 순서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라마단 달에 낳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이다. 둘째 남자아이의 이름은 가나 빠띠 나라닷바 마울라나(Ganapatih Naradatva Maulana)라고 지었다. 순서대로 ‘멋진 남자이며, 나라닷바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이다. 가운데 나라닷바는 아이를 낳을 당시 유명했던 인도의 지도자라서 이름에 넣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 이름을 지을 때 심작하게 고민하지는 않는 듯 보였다.

중부자바 스마랑 출신으로 자카르타에서 직장을 다니는 또다른 30대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동생 이름을 예끼 위자야(Ekki Wijaya)로 지었다며, ‘예끼’는 자신의 이름(Ikke)을 뒤집은 것이고 ‘위자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세력을 확장했던 고대왕국인 마자빠힛 왕조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종교가 거의 드러난다. 이슬람식 이름으로 무함마드 로비, 입누 뿌라보위, 압둘 아지즈, 파미 이드리스, 시띠 아이샤, 또픽 히다얏 등이다. 개신교 또는 가톨릭 이름으로는 요하네스 프리오노, 아나스타시아 뿌뜨리, 카타리나 레스파리, 베로니카 드위, 마리아 마가레타 등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름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길다. 그래서 사

적인 자리에서는 부르기 편하게 짧은 애칭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부디아르또’는 ‘부디’라고 줄여서 사용한다. 하지만 공적인 경우 Drs.(인문학사), Ir.(공학학사), S.H.(법학학사), S.E.(경제학사) H(하지를 다녀온 사람), Kyai(이슬람지도자) 등 붙여 경력을 나타내므로 이름이 더 길어진다.

자바사람의 남자이름 뒤에는 알파벳 ‘o’가 붙는 경우가 흔하다. 자바족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일부는 단일이름을 갖는 게 특징이다. 흔한 이름으로 아이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슬라멧(Slamet)이라는 이름이 있다. ‘위도도’라면 십중팔구는 자바사람이다.

자바사람들이 이름은 수부르또 수까르노, 수하르또, 위도도, 사르또노, 수만또노, 하디꾸스노, 수하르조노 등 ‘o’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시절에 자바사람들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예까(Eka), 드위(Dwi), 뜨리(Tri), 짜뚜르(Catur), 뽀짜(Panca)



등을 붙이고 뒤에 개인 이름을 추가해 예까 위자야, 드위 리안또 등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바섬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순다족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자바족에 이어 두번째로 큰 종족 집단이다. 순다 사람의 이름의 특징은 꾸스마아트마자, 수한다, 수하나, 주안다 등 ‘a’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도 우장, 쨌쩍, 다당 등이 흔한 남자이름이다. 또한 순다사람들은 이

슬람 신앙이 독실해 이슬람식으로 작명한다. 발리 힌두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여섯 가지가 개인이름을 갖는다. 카스타(Kasta)라고 칭하는 카스트(the Caste) 명이 맨 앞에 나오고, 출생 순서를 나타내는 이름이 나온 뒤에 맨 마지막에 개인이름이 붙는다. 구스띠 와얀 라마(Gusti Wayan Rama) 같은 형태이다. 가장 흔한 발리의 개인 이름으로 남자는 라마(Rama)와 아르야(Arya)가 있고, 여자는 샨띠(Shanti)와 라띠(Ratih)가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출생순서에 따른 이름이다. 보통 첫째 아이에게는 와얀(Wayan), 둘째에게는 뇨만(Nyoman), 셋째에게는 마데(Made), 넷째에게는 쾀똥(Ketut)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 다음 아이부터는 이 순서를 반복하여 부른다. 그러므로 다섯째 아이는 다시 와얀이 되고 여섯째는 뇨만이 된다. 와얀 대신에 뿌뚜(Putu)를 쓰기도 한다.

사용하고 있으나, 현 관광창조경제장관인 ‘마리 엘카 빵에스뚜’는 인도네시아식 이름을 쓰고 있다. 중국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도네시아식 이름으로는 구나완, 찬드라, 헨드릭, 헨드라 등이 있다.

또바 호수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바딱 사람은 성을 가지고 있다. 시나가, 실리똥아, 빵아베안, 후따빠아, 시만준딱. 시마뚜똥, 루비스, 나수띠온, 또빙 등이다. 바딱 사람은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등 다양한 신앙을 갖는다. 바딱사람이지만 ‘아흐맛 시레가르’는 무슬림이고, ‘알베르투스 시만준딱’는 개신교 신자다.

미나하사족은 마나도를 비롯한 술라웨시 북부에 거주하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성은 라땅, 링가, 까윌랑, 그롱안, 루만띠르, 만떡 등이다. ‘스테파누스 라땅’ ‘코르넬리우스 링가’는 미나하사 사람의 성명이다.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미낭까바 우족은 모계 중심 사회로 여성이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이름은 보통 이슬람식이다. 헤를라자, 파이잘, 리잘, 고잘리, 아르미잘 등 보통 ‘Z’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술라웨시섬 남부에 거주하며 주로 해상무역을 하며 부를 쌓아 온 부기스족 중 잘 알려진 사람이 BJ 하비비 전 대통령과 유습 깔라 전 부통령, 안디 말라랑엔 전 청년체육장관 등이다. 남자이름이 ‘안디’ 라면 부기스족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다.

중국인들이 19세기 후반에 농장과 광산 노동자로 대거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으로 이주한다. 이때 이주한 중국인들은 쾀뚜룬안(keturunan)이라 부르며, 3대 이상 살아서 현지 사회에 거의 동화되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반면 이주 기간이 1~2대 정도 지난 중국인은 또톡(totok)이라 부르며 동화가 덜된 편이고 정체성도 중국에 가깝다. 화교 중에 메가와띠 전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조정장관을 지낸 ‘킵 끼안 기’는 중국 이름을 그대로

[참고문헌] 작은 며느리의 나라(양승윤 저, 삼우반), 적도를 달리는 남자(김형준 저, 이매진), 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 나라(임진숙 저, 즐거운상상), 인도네시아(캐시드레인 저, 박영원 옮김, 휘슬러).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지성이면 감천 Tulus hati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도 오랜시간이 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든 세영과 재성 자신해 지방으로 발령 받은 세영을 찾은 재성은 프로포즈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힘든일도 같이 해결하고 싶어요
Aku ingin kita mengatasi semua rintangan bersama

참 힘이 되는 말입니다.

* Mengatasi :

어근은 Atas 로 두 가지 뜻을 같습니다.

1.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위 “ atas “ 입니다.

Tas saya ada di atas mejanya : 제 가방은 그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2. ~에 대하여 ~으로 이라는 뜻의 “atas” 입니다.

Terima kasih atas bantuannya.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Akan reservasi atas nama Ayu.

아유 이름으로 예약할게요.

** Me 동사 어근 - I 가 붙어, Mengatasi : 극복하다, 해결하다 라는 타 동사가 됩니다.

* Rintangan

방해, 제한, 장애, 결함, 원활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Mengganggu, menghalang-halangi, Ganjalan, hambatan, kendala와 유사한 뜻을 갖지만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맹목적인 미움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맺은 대표적인 스토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하지만 섹시디어 작품 중 4대 비극(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에 속하지 않는 비극적 작품이기도 합니다.

동속적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비취 질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이런 동속적인 남녀간의 사랑이야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가문처럼 집단끼리 원수가 되는 일은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 호남 관계나 인터넷의 자칭 진보, 보수 댓글 싸움 등을 보면 집단적 미움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현상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집단 간의 미움 못지않게 개인에 대한 맹목적 미움도 흔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의 극복을 위한 몇 가지 Tip을 드리겠습니다.

- 미운 사람이 왜 미운지를 생각한다. 그 이유를 상대편 및 제3자의 처지에서 다시 생각한다.
- 미운 사람과 자신의 공동점에 대해 생각한다. 미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 미운 이유가 나에게서는 없는지 되돌아본다. 무의식이 억압한 ‘자아의 못한 부분’이 원인을 가능성이 크다.
- 특징이 미운 것이 특징인 때문임이 명확하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미운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를 유지하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 Rintangannya ini akan mudah dilewati kalau kita melaluinya bersama.**

함께 극복한다면 이번 장애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Gangguan

*** Dia mengalami gangguan jiwa setelah kehilangan anaknya.**

그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 질환에 시달렸다.

Ganjalan

*** Pintu itu tidak bisa terbuka karena ada ganjalan di belakangnya.**

뒷부분의 결함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Halangan

*** Keterbatasan fisik tak menjadi halangan bagi anak itu untuk tetap bersekolah.**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신체의 한계가 장애요인이 되진 않는다

Hambatan

*** Kekurangan gizi dapat menghambat pertumbuhan anak.**

영양 부족은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Kendala

*** Dia mengalami banyak kendala dalam mengerjakan tesisnya.**

그는 논문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장애, 제한)을 겪었다.

*** Akhirnya, dia dapat mengatasi kendala itu dengan susah payah.**

마침내 그는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장애를 극복했다.





MUSEUM DI TENGAH KEBUN

김 현 미

집 구경. 그것도 집 자체가 박물관인 집. 더군다나 TENGGAH KEBUN 박물관은 쉽사리 구경하지 못하는 박물관이 아니던가? 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여태껏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책에서만 읽었던 다양한 형태의 삶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긴다.

나는 두 달 전 발리에서 실제로 집으로 사용되는 박물관의 모습을 보았다. 박제된 형태의 진열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주인의 삶과 집의 형태 그리고 그 마당을 품은 하늘의 모습까지 함께 버무려져 더욱 진한 감동을 주었다. 선이 반듯한 진열이 아니므로 나는 이 개인 박물관도 다소 어수선함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개인 박물관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박물관 입구는 대문을 열면 벽면 가득 풍성한 초록과 700m² 잘 정돈된 잔디와 벽돌로 되어있다. 기다란 입구의 끝, 현관에 다다르면 중부 자바에서 800년대에 조각된 가이사 석상과 진귀한 벌 화석. 여러 나라와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가져온 다양한 마스크들로 빼곡히 장식되어 있었다. 박물관의 구조가 아닌 집 형태의 이 TENGGAH KEBUN 박

물관의 수집품들은 유럽과 중동 멕시코와 아시아 등 63개국과 인도네시아 21개 주에서 가져온 것으로 70~80% 정도가 크리스티 경매와 소더비 경매장을 통해서 구입됐고, 각 지역을 다니며 수집한 귀한 진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놀라웠다. 완전 체의 석상들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손상 없이 지켜진 것들 이었다. 그 집의 석상들은 내가 보로부두르나 프람바난 사원에서 봤던 진품의 석상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세월을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형태, 정교한 조각들이 오랜 세월의 마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섬세함이 그 깊이를 더한 매력을 발하고 있었다. 1980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박물관장 Syahrials가 직접 거주하면서 역사적인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이러한 수집물이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400년 된 8만 개의 벽돌을 동인도 회사 건물과 기상청 건물에서 가져와 지었다고 한다. 심지어 문의 경첩 장식마저도 프랑스 쥘리웅(Cilliwung)강에 있었던 부깃두리(Bukit Duri) 여자 감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벽돌은 나에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스리랑카의 갈레,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군기지로 있었던 역사적 건물을 개축하여

지는 Amangalla 호텔에 머문 적이 있다. 그 바닥은 300년 전 타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욕실과 방의 나무 역시 그 당시의 티크 나무 목재를 살려 리모델링한 것이었는데 나에게서는 충격이었다. 300년 전의 그 알록달록한 타일을 재해석하여 현대식 모던 앤틱으로 완벽히 살려낸 그 재치에 나는 감동받았었다. 일부분의 마모와 촌스러움마저 승화시켜 새로운 멋을 창조함에, 그 비효율성(실제로 이러한 리모델링 작업은 새로운 것으로 짓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작업일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을 했음에 진심의 박수를 보냈었다. (Amangalla 호텔은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세계 휴양지라는 책에 소개되어있다) TENGAH KEBUN 박물관의 벽돌은 400년이란 숫자가 없었더라면 가슴에 와닿지 못했을 터이다.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담장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도네시아의 벽돌과 석재에 킁킁지가 썩 타인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TENGAH KEBUN 박물관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황홀하다. 아름다운 정원이 정물화처럼 펼쳐져 있었고, 19세기 파키스탄 카펫은 깊은 블루 빛을 바닥에 흩뿌리고 있었다. 거실의 소장품들은 각각의 알맞은 위치에서 소리 없이 빛나고 있었다. 커튼 플로어 램프 역시 각 나라에서 최초로 수출된 혹은 나라 간에 선물로 보내어졌었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박물관은 주제에 따라 17개 작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침실들은 크지 않았지만, 일부 침실의 내부 소장품들은 박물관 주인인 Syahrials의 개인 취향이 그대로 녹아 당나라 시대의 도자기, 조각상 그리고 그릇 류들이 청아한 자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스타일의 조각에 단아한 형태미가 있는 침대에 태국부처와 미얀마부처 그리고 아시아의 은 식기, 송나라 시대의 향아리와 당나라 시대의 그림과 조각들..... 1700년대 청나라의 안락의자와 19세기 프랑스의 기름등불, 초기 2세 왕이 사용했던 마호가니 의자, 유럽의 수백 년이 된 서랍장(각 가구 역시 감옥에서 만들어졌거나 유럽의 귀족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사용됐던 것이다), 동부 자바에서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의자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역사적 의미가 가득 담긴 예술적 가치가 충분한 귀한 소장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전시품들은 종교도 넘나들며 1600년대 만들어진 아우타야 부처의 석상과, 18세기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성모와 예수상, 그리고 17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페르디난트 2세 황제 그림 등 다양했다. (참고로 박물관 주인인 Syahrials의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했다.) 침실과 침실 사이에 있었던 석상 중 섬세한 기교로 후광이





새겨져 있는 불상 하나는 그가 오스트리아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 장만한 것이라고 했다.

각 방의 장식장 안에는 조그맣고 예쁜 여러 종류의 병들이 소장품의 설명과 사진이 곁들여진 책들과 함께 심심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하나 하나의 소장품들에 대한 설명과 연대를 듣는 것이 오히려 내 기억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술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껴 보고자 하였다.

침실을 지나면 정원 가운데에 정자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고, 정자 안쪽 벽에 많은 유명화가의 작품이 아무렇게 얹혀 걸려있다. 그 중에는 피카소의 그림도 있었다. ㅎㅎ 물론 진품이다. 무심히 걸려있는 진품들에게서 나는 더 한 기품을 느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 옛날의 붓 자국의 결을 느껴 보았다. 뚜렷이 기억되는 형태미와 세월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깊은 감동을 준다. 누군가의 몰입된 열정이 이렇게 후대에 남아 더욱더 큰 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스며들이, 그 번짐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 것인지 나는 다시금 들여다본다.

그는 인쇄업과 광고분야의 일을 했다고 했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가는 항목이었다. 나는 앤틱매니아인 언니가 있다. 그래서 앤틱을 사러 다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진품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시중에 나가면 진품 흉내를 낸 수많은 위조품들 중에서 그것의 차이를 알고 가려내려면, 그 또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지식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도 안다. 돈이라고? ㅎㅎ 그 돈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정이 있는 곳에 쓰이는 법이 아니던가? 나는 그 열정이 부족해서 가져오고 싶었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아서 그것이 오늘날의 시스템이 아닌 그 옛날에 이러한 것들을 들고 오기 위해서 쏟아 부어졌을 희생이 너무나 생생히 그려진다. 그건 휴식의 연장선인 여행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그것이 좋아서 미쳐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열정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바꾸므로 우리가 이렇듯 아무 대가 없이 구경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TENGAH KEBUN 박물관은 관람이 힘든 곳이다. 7월 문화탐방 일정에 잡혀있었다가 당일 취소되어서 많이 아쉬웠다. 구경 하는 내내 그의 열정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에 감탄했었다. 집을 구경 하려면 반듯이 그의 방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잠깐 놀랬다. 침대에 누워 있는 그는 일상 생활이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많은 휠체어가 있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왜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방문이고 일방적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라면 이런 방문도 너무 싫을 것도 같은데……. 그의 침대보는 소박한 옥양목이었고 바로 앞의 대궐 같은 옥조는 아끼느라 수십 년 동안 단지 몇 회만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이 단서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Terima kasih banyak’ 이라고 인사했다. 그는 우리가 이 박물관에 들른 첫 한국인방문객이라고 하며 설명을 곁들여 주었다. 난 원래 여행지에 가서 사진도 찍지 않고, 기념품도 전혀 사지 않는다. 오로지 그 풍광, 느낌을 집중해서 맘 속에 담아오지 사진 찍으라 기념품 사느라 그 시간을 흐리지 말자 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맘이 바뀐 것 같다. 여행지에서 조잡한 기념품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엔틱을 사면서 묘한 매력과 함께 사진보다 더한 감동을 주는 경험을 했다.

오늘 나는 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영역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그를 보며 내 생각의 일부분이 수정될 것이라고 짐작이 되었다. 엔틱의 세계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나에게 오늘은 한 단계의 높은 수준의 역사지식과 예술적 고찰에 대한 숙제를 준 문화탐방이었다. 내 생각의 뿌리에 또 하나의 풍성한 가지를 뻗어낸 하루였다. 박물관을 나오며 마지막 복도에 걸려있는 엔틱 글라스

창문을 보았다. 여태껏 내가 골동품 거리에서 보았던 유리 빛 들과 확연히 달랐다. 은은하게 배어있는 물빛이 자신만의 기품을 뿜어내며 내게 남은 진한 여운을 달래주며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또 다음 문화탐방을 기다리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공유하게 됨에 한*인니문화연구원에 감사드린다.

Jl. Kemang timur Raya 66,
Jakarta-12730,
(021) 71 96 907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 할 곳 50

17. 경상남도 진해 여좌천 벚꽃길

다섯번째에 실렸던 진해의 기차역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진해의 여좌천도 빼놓을 수 없었다. 김하늘과 김재원 주연의 드라마 “로망스”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로거들에 의하면 낮보다는 밤이 훨씬 아름답고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고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8. 보성 녹차밭

대한민국의 40%정도 되는 녹차가 보성의 녹차밭에서 자란다. 무성한 녹차밭은 드라마나 광고 또는 영화의 촬영지로 애용되어 왔으며 사진작가들의 명소로도 알려져 온 곳. 물론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삼겹살처럼 녹차와 관련된 음식과 물건들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 때문이다. 매해 5월에는 녹차 축제가 열린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9. 경주 불국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사찰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현장이 아닐까.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등으로 아직까지도 신비로움을 갖추고 있는 한국 최고의 역사 유적지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20. 대관령 양떼목장

한국에서 유일한 양떼목장인 대관령 양떼목장은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변신한다.

동화속 그림같은 풍경을 제공하며 주변에는 최고급의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다.

강원 평창군 도암면 황계3리
(대관령면 황계3리) 14-104번지>>



21. 청도 소싸움 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50만여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소싸움 축제이다. 130여마리의 소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미술 행사, 로테오 행사 그리고 마술 축제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소싸움이라는 행사가 부담스럽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면 낙대폭포나 운문사 등을 방문할 수도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22.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흰 모래를 자랑하는 이곳은 가족단위로 가기에 적합한 해변이다. 깊이는 1.2미터 정도로 너무 깊지 않고 주변 소나무 숲 근처에서는 캠핑도 할 수 있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방문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기엔 안성맞춤. 협재는 특히 전복과 소라로도 유명해서 해변 근처의 식당에서 먹는 해산물 체험은 필수 코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1번지>>





‘야생화(들꽃)’에게서 힐링하다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온화한 햇빛이 쏟아지는 늦은 오후, 나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았다. 언뜻언뜻 바람이 시원하게 스치는 오솔길의 들꽃은 따스하게 나를 맞아주고 큰 잎을 바람에 내어주고 사랑살랑 나무기는 야자나무는 손사래 치며 나를 반긴다. 항상 무언가에 목마르고 여유가 없던 내 안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다. 산야처럼 펼쳐진 넓은 풀밭엔 이름 모를 야생화와, 들꽃들,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이 조그맣게 정적을 흔들고 있다.

그들만은 내가 터득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과 세상 속의 평범한 이치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머리위의 파란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맑고 파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늘을 향해 곳곳이 서있는 열대나무들은 모진 바람과 억수같은 비가 몰아쳐도 거뜰히 이겨내고 머

잖아 있을 훌훌 털고 푸른 자태를 유지할 것이다. 나무들의 의연한 모습을 대하니 왠지 움츠러드는 내자아가 더 작게만 느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돈, 명예, 보석, 가족, 친구, 건강, 자연... ‘사람마다 다르고 또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불혹의 나이를 훌쩍 지나며 살아오다보니, 딱히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 할 수가 없다. 나이를 먹다보니 그만큼 애착도 줄어든 탓이다.

그저 모든 것들이 덤덤하게 생각될 뿐이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걱정도 많고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마냥 두루 몽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되는 것 같다. 꿈조차 희석되고 만 것 같아 그런 열정적인 시절이 내게도 있었던가 싶어 그때의 기억들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꼭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가족들의 건강과, 내마음의 평화, 그래, 이것이면 나는 족하다. 충분히 족하다. 조금 더 길을 가다보니 큰 나무 밑에 누렇게 말라가는 한해살이 들풀들이 가느다란 대궁에 수많은 씨앗들을 달고 있다.

바람결에 허리 굽히는 풀잎 곁으로 나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내밀한 음성 귀 기울여 본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몸도 조그맣게 오므라든 채 한 포기 들풀이 된 느낌이다. 뭐, 사람이라고 위세 부릴 것 하나도 없노라고 들풀은 가만히 속살대고 있다. 그렇구나,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아프고 쓸쓸할 때가 많은 법인가 보다. 사나운 비바람과 천둥번개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인 줄 아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그래도 인내로서 견디고 키 울리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이렇게 웅골찬 씨앗들을 여물었다고.....

큰 나무사이에 끼어져 피어있는 꽃들은 유난히 작고 여리다. 흐느적거리고 피어있는 모습이 열대지방의 야생화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나 야릇한 잎사귀 속에 간직한 강한 생명력은 참으로 놀라웠다. 들풀은 한 시절 착실히 살았기에 이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오히려 희망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바람결에 나는 그들의 향기 나는 노래에 젖어 본다. 수년을 버티고 서서 굽어보는 저 큰 나무들을 때론 시샘도 할법한데 헤아려보니 거목에게 내린 따사로운 햇살, 가는 비와 굵은 비를, 그 촉촉한 은혜를 한 치의 차별 없이 자신들도 다 받았노라 며 들풀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다.

어쩌다 꽃가지를 따서 물에 담가 놓거나 땅에 묻어주면 그 자리에서 또 알아서 살아간다니, 들풀들은 정말 착한 식물들 같아 마음이 숙연해진다. 열대식물들의 무던함이 이곳 열대지방 사람들의 심성과도 닮아 있는 것 같다.

수많은 들풀들, 열대지역의 야생화는 유난히 색깔이 화려하고 탐스럽게 피어있다.

한세상 확실하게 살다가는 정열이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대견하다. 건다보니 야자열매에 달린 하얀색의 단아하고 반듯한 꽃은 현지인에게 이름을 물으니 ‘리라위리’ 라는 야생화란다. 이름도 예쁘다. 내가 항상 닮고 싶었던 꽃, 어쩌다가 골프장에서 만나면 제일 반가워하던 꽃이었다. 너무 예쁘고 마음이 끌려서 라운딩하면서도 자주 귀에 꽃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녹색바람이 쉬어가라 손짓한다.

한참을 걸었나보다. 잠깐 벤치에 앉았다. 이름 모르는 꽃들이 제법 서로를 쳐다봐 달라고 아우성이다. 의외로 이런 곳에도 이렇게 작고 예쁜 야생화가 피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우리나라 철쭉마냥 군락으로 장기간 피는 꽃들이 무성하다.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화초들의 특징이 있다면 꽃 색이 화려하고 꽃잎들이 큼지막하다는 것, 하기가 꽃들에게 제일 좋은 자양분은 변치 않는 햇빛이 아닐까한다.

야자나무 열매에 양증맞게 매달려있는 주황색과 오렌지색의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더위를 잊게도 하는 시원한 느낌마저 준다. 마치 식물원에 온 기분이다.



야생화의 향취가 스며드는 어느 늦은 오후의 산책길에서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식물들의 일상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내 상념의 일부분을 털어낸 듯 산뜻한 기분이 되었다. 늘 매연과 소음뿐인 도시 한복판 아파트에서 머리를 쥐어짜며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 같다. 적은 시간이지만 왜 이리도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에 인색했을까. 시간을 일부러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지만 그 번거로움은 오늘 내가 맞본 희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는다.

오늘의 이 싱그러운 희열은 내 생활의 활기로 되돌아와 바쁜 일상에 잔잔한 정서로 내게 위안을 줄 것임을 나는 안다. 다음번엔 또 어떤 야생화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 사람들은 알까? 흙에는 위로 뻗어가는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일 듯 말 듯 한 꽃을 피우는 작은 생명도 있음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화려한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까.

오늘은 홀연한 산책길에서 야생화처럼 피어있는 들꽃을 향한 작은 관심으로 그것들과 좀 더 가까워졌다. 법정스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난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사람이 기댈 영원한 품이다. 또 자연은 잘못된 현대문명의 영원한 해독제이다.’ 또 류시화님이 엮으신 시의 한 구절에는 하늘과 구름, 별과 이슬과 바람, 흙과 강물, 햇살과 바다, 나무와 짐승과 새들, 길옆에 피어있는 하잘것없는 이름 모를 풀꽃이라도 그것은 우주적인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유심히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이 지니고 있는 신비성과 교훈을 캐낼 수가 있다.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있다. 나는 다시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가야겠지만, 내가 걷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돌아가는 길에는 침묵하는 자연의 울림이 고요한 정적이 내게 들어온다. 그동안의 바빴던 생활이 ‘힐링’이 되어 가슴에 들꽃하나 담겨진 느낌이다. 이미 그 들꽃들은 어느새 내 삶에 또 하나의 소중한 의미로 다가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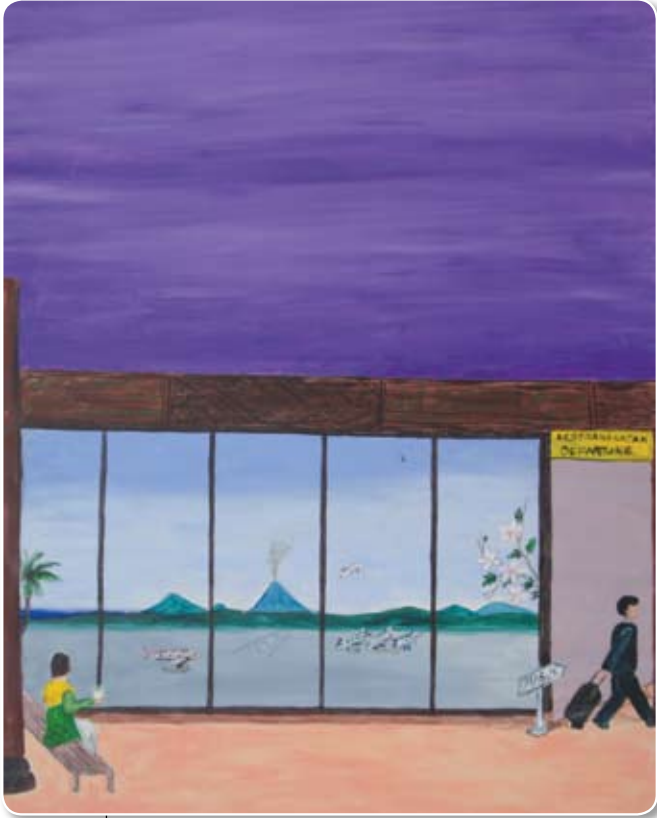
배웅

시 : 사공경
그림 : 이태복

대항실 유리창 너머 노을이 진다.
아득함이 출렁이는 출국장
생처럼 짙은 여정의 끝에서
회귀의 시간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저마다의 생각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어
밀림과 폭포 차가운 물보라로
일렁이고 일렁거리고
야자수 잎앞마다 묻어 있는
휴화산의 유황 냄새
가시지 않고 살아
얼마나 오랜 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까
대항실 밖의 나무들 어두워지고
돌아갈 곳 있어
기어이 돌아가야 하는
그대
황량한 사막에
플꽃 하나 피워주려 태평양 건넌 마음
오늘이야 알았다

사랑은 왜 끝에 당도해서야
저를 드러내는지
눈물 한 방울 돌바닥에 떨어지지 부서진다



사공경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회장/ 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2005년 인도네시아 문화산책①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발간
2009년 인도네시아 문화산책②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국립박물관 Museum National

고고학 보물전시관 전편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국립박물관 귀중품 유물관에는 온갖 장신구와 용기들이 금빛을 번쩍거리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세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금속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번성과 몰락을 되풀이하면서 현대로 걸음을 옮겨 온 문화 형성의 지배자들이 사용하던 이 유물들은 인도네시아의 곳곳을 나누어 지배하고 있던 여러 왕조들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황금에 대한 경배는 한결같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보물관에서는 금·은 소장품이 3,450점(구관2층+신관 4층)에 이르며 구관에는 지역별로, 신관에는 기능과 역사별로 전시된다.



Ketopong

지역별 민속관(구관 2층) 고고학 전시실에는 힌두-불교 시대에서 내려온 상(像)과 금으로 된 유산을 보관한다. 금으로 된 왕관에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된 것도 있는데 이는 리아우 씨악(Riau Siak) 왕국 때의 것이다. 1945년 술탄 시아리프 까림(Sultan Syarif Karim) 2세는 왕관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증했다. 위에 3개의 연꽃이 뻗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모양의 사각형이 나열되어 시각적이며 고귀해 보인다. 칼리만탄의 꾸타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 왕의 금왕관 꼬또뽕(Ketopong)은 무게가 2kg이나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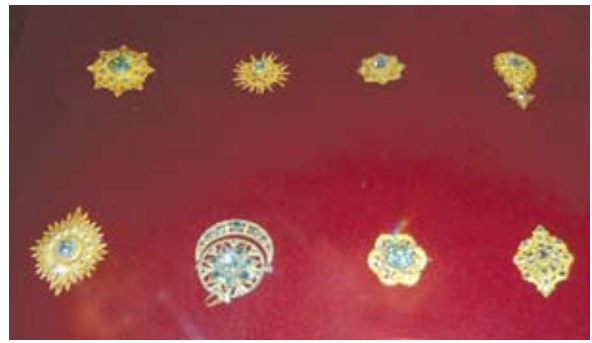
다. 왕궁을 상징하는 관답게 기개가 있는 호방한 형체로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두라에서 온 빈랑자(betel-nut)를 담은 통은 양증맞은 망기스 모양으로 꼭지는 금으로, 통 부분은 거북 껍질로 만들어졌다. 뚜껑과 4개의 금으로 된 얇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옆에는 연고를 담은 금으로 된 통이 전시되어 있다. 윗부분이 망기스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그릇 모양으로 서부 자바에서 온 것이다. 과일의 여왕 망기스처럼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인다.

발리의 끌룽쿱(Klungkung) 왕궁에서 가져온 정반은 아랫부분에 ‘북쪽의 왕궁에서 온 대비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발리어로 적혀 있다. 제사음식이나 시리를 넣는 그릇이었다. 어느 곳에서나 대왕대비 권력은 대단한가보다. ‘대비’라는 명칭만으로도 모든 왕궁 여인들의 존재는 파



문혀버린다. 노란 비단으로 덮이는 나무껍질로 만들어진 짧은 옷은 발리의 전통의식 때 무용수가 입었던 옷이다. 칼라 양쪽에 혀를 내미는 용의 머리 문양이 금으로 새겨지고, 비단은 구름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문양으로 보아 중국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름 사이로 황금들판이 보이는 듯 추는 춤이었을 것 같다. 서 띵모르에서 가져온 은으로 된 가슴 장식품은 원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에게 달아준 장식이다. 뒷판에 ‘그대가 지켜 온 이 땅이 자랑스럽다.’라고 쓰여 있을 것 같다. 남자들은 용맹과 명성을 상징하는 이 장식품을 머리 장식으로도 사용했다. 1894년 네덜란드 군대가 누사똥가라 바랏에 있는 롬복의 마따람-짜끄라느가라(Mataram-Cakranegara) 왕궁에서 금과 은으로 된 장식품, 무기, 식탁용 수저받침대, 직물 같은 유산을 빼앗아 네덜란드로 보냈다. 나머지는 연구하기 위해 현 국립 박물관으로 알려진 Bataviaasch Genootschap 문화원에 보냈다. 롬

복의 성난 바다는 잠들지 않았다. 마침내 1977년 네덜란드로 가져갔던 232개의 보물을 인도네시아 교육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 돌려주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허리띠, 팔찌, 발찌, 브로치, 담뱃대, 시리(Sirih)를 씹는 도구,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장식품들이 구관 민속 전시실에서 보관되고 전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사시대부터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인도인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전파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금은 영원함과 신의 빛을 상징한다. 산스크리트어로 금은 ‘suvarna’라고 하여 ‘아름다운 색상’을 뜻한다. 금 외에 4세기-15세기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은도 많이 사용했다. 금과 은은 신의 동상과 의식 장비, 장식품과 유물, 동전(화폐)으로도 사용되었다. 게다가 신분 계급의 상징으로 당시 귀족들만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였다. 이 전시실에서 보관되어 있는 보물은 8세기부터 15세기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자바에서는 금을 만드는 사람을 ‘판데 마스(Pande Mas)’, 은을 만드는 사람을 ‘판데 살라카(Pande Salaka)’라고 불린다. 왼쪽 전시실 입구에 높이가 1.26미터인 여신상 뿌라스나빠라



미따 (Prajnaparamitha)가 있다. 대승불교에서 제일 높은 여신이자 지혜 신이라고 한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상은 연꽃 위에 앉아서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자세는 법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신의 평온한 표정에서 동양적인 관조를 느낄 수 있다. 이 여신이 치장한 장식품은 전시관 전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 이 상은 동부 자바에 위치한 싱오사리의 왕비인 켄 데데스 (Ken Dedes)로 알려진다. 그녀는 싱오사리 초대 여왕으로 후에 마자빠히트 왕조로 이어진다. 그 외에 마자빠히트의 왕인 라덴 위자야 (Raden Wijaya) 부인을 상징한다고도 한다. 이 상은 1818년 싱오사리 사원 안에 있는 무너진 뿌뜨리 사원 (Candi Putri)에서 발견되었다. 1820년에는 네덜란드 Rijkmuseum에 전시되었다가, 드디어 1978년 1월에는 국립 박물관의 수집물로 기록된다. 사진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 사진 대신 상(像)을 만들고 평소에 사용했던 장식품들을 상에 묘사하였다. 그래서 상을 통하여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옛날에 액세서리는 장식용뿐만 아니라 액막이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조개와 거북, 연꽃 등 신비로운 문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힌두교-불교 시대 때 썼던 액세서리로서는 왕관과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하다. 수첸 (Sucen) 유물은 중부 자바의 뜨망궁에 있는 마을에서 발견된 금 유물이다.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된 금판과 머리핀처럼 생긴 금판, 양산 등이 전시된다. 소나무 열매처럼 생긴 이 통은 시신의 재를 담는 통이라고 한다. 살아 온 날의 아픔이 외로운 눈부심으로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예를 들면 중부 자바의 뿌갈롱안 (Pekolangan)에 사는 그들이 재를 통에 담은 습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납땀 기술과 양각을 섞어서 만든 것이다. 중부자바의 바뉴마스 (Banyumas)에서 발견된 접시에는 망기스 나무 아래 슬프게 앉아 있는 머리가 긴 여자 문양이 새겨져 있다. 바람소리도 우우 슬프게 들리는 것 같다. 이 그림은 라마의 부인인 신따 (Sinta)가 라흐와나 (Rahwana)에게 잡혔을 때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은으로 된 이런 접시는 중국에 많이 있지만 자바에서는 드문 것으로 중요한 유물이 된다. 의식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친선관계용으로 이 접시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중부 자바의 워노소보 (Wonosobo)에 있는 그무루 (Gemuruh) 지역 유물은 7세기-9세기에서 유래된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인도 혹은 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 유물 중에 시와와 위스누, 빠르와띠 등 입체상이 양각으로 판 모양인 것도 있다. 파괴의 신으로 알려진 시와와 빠르와띠 상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한 쌍의 신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인도 문화에 시와와 빠르와띠는 혼례식 때 항상 손을 서로 잡았다고 한다. 따라서 힌두 시대 때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상으로 사용했다. 이 상은 1979년에 금으로 만들어진 부서진 통 안에서 발견되었다. 액세서리를 보면 9세기-10세기 유물임을 알 수 있다. 브라마, 위스누, 시와 같은 힌두교 세신 외에 그들의 부인인 사라스와띠 (Saraswati), 스리 (Sri), 빠르와띠 (Parwati)도 상으로 묘사했다. 또 꾸웨라 (Kuwera), 가네샤 (Ganesha), 수르야 (Surya) 등 다른 신들도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가 전파될 때 그 신들을 석상이나 금속 (금, 은, 청동)으로 된 상으로 상징했다. 뿌리삐호 (Pripih)란 상자 모양의 돌은 중부자바의 블라한 사원 (Candi Belahan)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에 사원 장식이나 종교적인 의식 때 사용되었던 금 장식품들이 전시된다. 돌과 금으로 된 링가와 요니도 고고학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다.



도장 반지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합법을 상징하는 도장 기능도 가졌다. 표면에 ‘스리 여신이 여기에 있다’를 뜻하는 ‘스리 하나 (Sri Hana)’가 거꾸로 적혀 있다. 또 가루다가 새겨져 있는 반지도 있다. 9세기-10세기 때 동과 은으로 만들어진 시와 마하데와 (Siwa Mahadewa) 상이 1933년 중부 자바의 뜨갈(Tegal)에서 발견되었다. 뒤쪽 왼손에는 묶인 머리처럼 생긴 파리를 쫓아내는 짜마라 (Camara)를, 앞 왼손에는 까만달루 (Kamandalu)란 물병을, 뒤 오른손에는 목주 같은 악사말라 (Akshamala)를 들고 있다. 앞 오른손은 가슴 앞에 있다. 시와 마하데와 상은 찬드라 (Chandra)란 초승달과 해골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뺨을 어깨에 둘러메고 있다. 입술은 금으로 덮여있다. 높이가 96cm나 되는 동과 은으로 된 시와 마하데와 상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네팔과 장식, 금으로 된 입술로



보아 힌두교 최고의 신임을 알 수 있다. 고고학 관련된 상외에 누산따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 16세기-20세기 동안 존속한 왕국들에게서 유래된 금으로 만들어진 장식품과 수공품도 전시된

다. 여기에 있는 유산들은 중요하다. 정교하고 화려한 전시품에서 옛 인도네시아인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훌륭한 금속 공예기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전시관에 있는 수많은 유물과 유품들이 더 오랜 발자취와 무명으로 생을 살다 간 서민들의 흔적이 많다면 이 박물관의 예술적인 금속 공예품들은 그들을 지배했던 이들의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찬란하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슬픈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역사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권력의 지배는 여전히 냉정한 현실이 아닌가. 아무튼 찬란한 문화는 창조

적인 내일을 앞당기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아닌가.

참고문헌(국립박물관 신관책자)

* 고고학 박물관 후편 (신관4층)이 11월호에 계속됩니다.

Museum Nasi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금 : 08:30-16:00

토 - 일 : 08:30-17:00

월, 공휴일 : 휴관

입장료 : Rp 5000 (성인), 2000 (어린이)

/ 외국인 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웹)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계약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법에서는 법적인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인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단체가 법정 구비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법인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권리는 없으나 다른 법률행위는 자연인처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자연인처럼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육체가 없으므로 행정적 및 경제적인 책임은 법인 자체가 져야 하나 형사체벌 책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책임자인 자연인이 져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간의 관계와 법인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종교단체와 소속멤버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권리 의무의 관계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지로 성립되

는 계약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 때문에 자동으로 발효하는 계약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 법제도에서 계약을 규정한 기본법은 민법(Kitab Undang-Undang Perdata/KUH Perdata)이며 모든 법규는 이해관계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사람이 엄마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산을 상속받는 자는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인의 채무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인도네시아 민법은 제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사람에 관한 법, 제2권은 물건에 관한 법, 제3권은 계약에 관한 법, 제4권은 입증과 시효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권 계약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다.

1. 계약법의 원칙

민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법의 원칙에는 i). 계약 자유의 원칙, ii). 합의의 원칙, iii). 신의의 원칙, iv). 구속의 원칙, v). 평등의 원칙, vi). 형평의 원칙, vii). 확실의 원칙, viii). 도덕의 원칙, ix). 적절의 원칙, x). 관행의 원칙이 있다.

1.1.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계약)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 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1.2.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1.3. 신의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1.4. 구속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시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시킬 수 있다.

1.5.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색갈, 종교, 사회적인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유에 관 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분양업체 소비자 간, Project Owner와 Contractor 간, 여하한 관계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 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실효시킬 수 있다.



1.6. 형평의 원칙

계약이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1.7. 확실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1.8. 도덕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 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방이 돈만 받고 계약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1.9.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 “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뿐 만아니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1.10. 관행의 원칙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은 이미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예” 를 들면 목장 주인 김 사장과 가축 도매상이 사장간에 가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가축을 다음 달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계약서 내용 중에 양수 전에 가축에게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관한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수 전에 가축이 병이 들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경우에 계약서에는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가축 시장의 관행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인인 목장 주인 김사장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적법 계약 필수조건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적법한 계약의 필수조건은

-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이 있어야 한다.
- iv).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는 이상 4가지 조건이다.

2.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

2.1.1.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 i).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 ii).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2.1.2.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2.1.3. 계약 당사자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2.2. 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 자격 조건

2.2.1.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

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2.2.2.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 매입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2.3.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

2.3.1. 계약 목적물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restasi라고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2.3.2.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2.4.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

2.4.1.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마약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부동산 차명 보유 계약, 부도덕한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테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2.4.2. 계약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3. 계약법의 법원(法源)

계약법의 법원은 민법, 상법, 불공정거래 금지법, 건설업법, 분쟁해결 중 재법, 결혼법, 국제협약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4호 등 많은 법률이 계약법의 법원이다.

4.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법의 근원인 민법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며 언제부터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민법 제1320조에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네 가지 설이 있다.

4.1. 수락설

이 설에 의하면 오퍼하는 측의 오퍼를 상대측이 수락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받은 오퍼장에 오퍼를 받은 측이 서명하면 막 바로 계약이 발효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퍼를 수락하는 측이 서명을 하고 오퍼를 낸 측이 오퍼에 동의한 측의 서명이 된 오퍼장을 받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4.2. 통보설

통보설은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동의한 사실을 오퍼한 측에 통보한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오퍼를 측이 통보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4.3. 인지설

오퍼장을 받은 상대 측이 오퍼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이다.

4.4. 동의 확인설

오퍼장을 보낸 측과 오퍼장에 동의한 측이 오퍼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상호 직접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양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5. 계약의 형태

대별하면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이 있다. 모든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강제 구속력이 있으며 위약 시에는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서면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5.1. 일반문서 계약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형태이다. 일반계약의 특징은 계약된 내용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제삼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삼자가 일반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면 계약 당사자는 제삼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일반계약서를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 공증효과가 있는지 공증효과 유무를 질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바 일반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체결하고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것이지 당사자에 대한 진위, 계약 내용의 적법 여부 판단은 불가하다. 일반계약을 공증인에게 등록하는 일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차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반계약을 피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 혹은 공정증서 작성관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계약이 더 바람직하다.

5.2.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계약하는 계약형태이다. 공증인이 계약당사자들의 신분 및 친필을 확인했

다는 계약이다. 공증인은 내용에 관하여는 간여를 하지 않는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3. 공정증서 계약

계약당사자들의 자격(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 작성관(공증

인, 토지거래문서 작성관, 면장 등)에게 미리 보내고 공정증서 작성관이 공정증서 양식에 맞추어 계약서를 새로 준비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증서 작성관 면전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은 공정증서 작성관이 보관하고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은 없고 공정증서 작성관의 서명만 있는 공정증서 계약서를 제공한다. 공정증서 계약의 특징은 공정증서 작성관이 계약 당사자의 신분 진위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계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확인 후에 체결한다. 공정증서 계약은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공정증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의무가 있다. 특정한 계약, “예” 를 들면 부동산 매매 등은 일반계약이나 공증인을 증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공증인 증인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정증서 계약의 의무화하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 형태이나 경비가 다른 형태에 비하여 고가이다. 공정증서 작성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매매증서는 통상 매매가액의 약 0.5%(영점오프로), 기타 채권채무 관련 공정증서는 계약가액의 약 0.1%(영점오프로) 선이다. 인도네시아 제도 및 법규에 밝지 않은 외국인일수록 공정증서 계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호에 계속)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과학, 철학, 사회

나, 스티븐 호킹의 역사 | 스티븐 호킹 저/전대호 역 | 까치



현대 우주론의 최고의 과학자가 쓴 자서전
스물 한살에 생명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도 그후 50년간 생존하면서 수많은 이론물리학을 남긴 최고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자서전. 중등학교의 학급에서 20등 정도를 한 평범한 소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최고의 이론물리학자가 되기까지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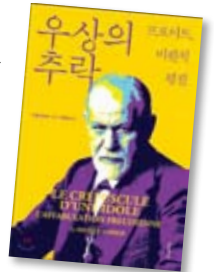
정을 담았다. 그의 생활은 치열했지만 그 속에서도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과 열역학이라는 물리학의 세 가지 근원적인 이론들을 통합하여 우주의 실체에 대한 인간의 물음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간 우주론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쓰여진 이 자서전은 “간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역자는 저자가 더 자세하게 쓰지 않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의 학문적 성과와 이론의 핵심을, 그리고 그가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했는지 등에 관해서 “역자 후기”에서 보충 설명했다.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전강수 역 | 돌베개

『진보와 빈곤』으로 일약 세계적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랐으며 한때 마르크스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던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책.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 해법을 매우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풀어나간다. 사회발전의 법칙, 정치의 부패, 독점의 발달, 실업과 과잉생산, 기술혁신, 재정 운용의 오류, 정부의 역할, 농촌문제, 문제해결 방안 등 실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는 사람이 있고 삶이 있는 경제학 서술의 모본(模本)이라 할 수 있다.

우상의 추락 | 미셸 옹프레 저/전혜영 역 | 글항아리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한 정복자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 이 책은 정복자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적 평전을 시도한다. 무의식의 발견을 통해 이성적 거대서사에 숨겨진 병리적 측면을 다채롭게 드러냄으로써 인간 이해의 인식적 차원을 대폭 확장시킨 프로이트의 이론은 니체, 마르크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던과 포스터모던 시대를 풍미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니체를 비롯한 선학들의 철학적 전통을 등에 업는 동시에 그 흔적을 체계적으로 지우고, 각종 조작된 실험결과를 통해 과학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온 한 권력 화신의 날조물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빅 히스토리 | 데이비드 크리스천, 밥 베인 공저/조지형 역 | 해나무

한 권으로 읽는 우주, 지구, 인간의 역사.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밥 베인의 『빅 히스토리(Big History)』는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대 사회와 미래까지 다루는 역사책이다.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 등 여러 다른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137억 년이라는 우주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다. 빅뱅, 태양계의 탄생, 지구의 탄생, 생명의 기원, 인류의 등장, 문명의 탄생, 산업의 발달 등 가장 핵심적이고 굵직굵직한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여준다.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파악하는 빅 히스토리 입문서이자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 따뜻하고 포근한 삶



나는 마당있는 작은 집에 산다 | 이현욱 저
| 카멜레온북스

2010년에 전국에 땅콩집 짓기 열풍을 몰고 온 실용주의 건축가 이현욱 소장이 지난 4년 간 땅콩집에서의 삶과 자신의 건축 철학을 담은 이야기. 봄에는 아이들을 위해 마당에 나무집을 짓고, 눈 내린 겨울에 눈사람도 만들고 집 뒷산에서 눈썰매도 탄다. 이현욱 소장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라고 제안한다. 대도시 아파트 전세가로 수도권에서 집을 지어 살아보라고 권한다.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족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말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 당장 주변을 돌아보라고 권한다.



생존을 가장 잘하는 직장인 되기 | 이내화 저 | 휴먼큐브

어떻게 하면 현재와 미래가 탄탄한 조직원이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질문이다. 21세기 직장인의 최대 화두인 '생존'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생존의 방법과 전략을 반드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 책임을 확실하게 다하는 것, 나아가 회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업무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산사로 가는 즐거움 | 현중 저 | 공감

삶에 지치십니까. 카리스마 현중님의 산들바람 같은 이야기 MBC 일밤 '아빠, 어디 가 - 템플스테이' 편으로 소개된 강원도 소금강 계곡 현덕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푸근한 미소의 현중 스님. 주지스님으로서의 위엄보다는 온몸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던 소탈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휴식, 진정한 힐링의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고요한 산사에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혼탁한 속세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작은 행복을 일깨워주는 현중 스님의 파스텔화 같은 산사의 스케치이다.

아낌없이 주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비움'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죽어 간 생명들의 영혼을 동식물 천도재로 달래주며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소소하고 나직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자기계발 성격의 '~하라'는 식상한 법문 형식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 생명존중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찾아나서는 작은 울림의 서정적 생활법문으로 일상생활에서 잇기 쉬운 행복한 마음을 일깨워준다.

오늘, 수고했어요 | 이수동 저 | 아트북스



3년 만에 출간된 토닥토닥 그림편지의 두 번째 이야기. 동화 같은 그림과 따스한 글로 행복의 모습을 그려낸 전작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힘든 이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를 더욱 깊어진 언어로 표현해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 지치고 힘든 이들을 토닥이는 지은이의 시선은 한층 더 따스해졌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이들의 설렘을 노래하는 대목에서는 수줍은 소년의 모습으로, 인생의 환희를 노래하는 대목에서는 연륜 넘치는 어른의 안목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유서영
021-2902-1714(직통105) / 0821-2282-8352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YES24.COM
INDONESIA

반둥 한인회 소식

반둥한인회 & 서울민병원, 대구 경산중앙병원 MOU 체결



2013년, 제7대 반둥한인회 최이섭 회장은 반둥한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의 우수 병원들과 종합검진 및 건강검진 MOU를 체결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게 되었다. 서울 강남의 민병원, 대구 경산중앙병원은 각종 암, 질환 및 부인병 전문병원으로서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상황에서 병원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로, 경비를 대폭 할인 등을 약정 하였다.

반둥 한글학교 이전 및 MOU



지금껏 반둥한인학교가 한인회관 한켠에 보잘 것 없는 시설 속에서 운영이 되었으나 이번 제7대 한인회에서는 반둥 인터네셔널 스쿨과 반둥한글학교 사용 MOU를 체결 하였다.

정식 학교 인가를 받은 인터네셔널 스쿨의 강의실은 물론 수영장, 잔디가 깔린 축구장, 정식 농구코트등 학교 시설물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고민 자녀들의 특별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동한인회 & 추계 교민체육대회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동인터네셔널 스쿨(BIS)에서 2013년 반동 교민을 위한 추계 체육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은 경기가 끝나고 교민전체가 삼겹살 파티로 반동에는 살지만 서로 교류가 없어 서로 서먹했던 교민과의 즐거운 한때가 되었다. 약 300여명의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처럼 화합의 장을 만든 풍성한 잔치의 자리였다.

10월의 영화 추천작



대한민국을 울리는
기적 같은 감동!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괜찮아 소원아,
다 괜찮아”

어느 비 오는 아
침, 학교를 가던
9살 소녀 소원은
술에 취한 아저씨
에게 끌려가 밧고
싶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 이 일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소원이네 가족. 하지만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 나서는데... 올 가을, 대한민국을 울리는 기적
같은 감동이 시작된다!

<소원>



영화에 배우 설경구와 엄지원이 없고 온전히 역할
에 녹여진다. 오직 아이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동훈과 미희만 있을 뿐이다. 특히 설
경구는 전작의 카리스마와 코믹한 이미지를 모두
지운 채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태어나고 아
역배우 이레 역시 깊은 여운을 남긴다.



NEW YORK 명품
을 휘감고 파티를
즐기던 뉴욕 상위
1%의 ‘재스민’!

사업가 ‘할’과의
결혼으로 부와 사
랑을 모두 가지게
된 ‘재스민’. 뉴
욕 햄튼에 위치한
고급 저택에서 파
티를 열고, 맨해튼
5번가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던 상

위 1%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난다.
결혼생활을 끝내버리고 하루아침에 땡전 한 푼 없
는 빈털터리가 된 ‘재스민’은 여동생 ‘진저’에
게 신세를 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오
른다. 명품샵 하나 없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그녀. 모든 것은 낯설
기만 하고, ‘진저’와 루저같아 보이는 그녀의 남
자친구 ‘칠리’가 불편하다.

<블루 재스민>

우디 앨런으로부터 전염된 것일까. <블루 재스민>
은 케이트 블란쳇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영화로
기억될 것 같다. <블루 재스민>은 정말 오랜만
의 ‘원톱’ 주인공이 등장하는 우디 앨런 영화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우디 앨런이 그녀에게 전적으
로 의지한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9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딤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23 0807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 피 은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온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esa Tower 15th Fl. #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현분 현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精과誠과 德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tbn.net.id, doowangjkt@gmail.com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이보여도 속부터 걸까지 다른 Quality
 함축은 함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관, 무실모래라 인증
 인니 농축산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한일마트**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J 건축·인테리어

- 1. 사무실전문 인테리어공사
- 2.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 3.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말리안탄 Pit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